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인간 남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28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3월 18일 (토) 제 162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유리 천장"에도 여성 지위 지속적 신장

바나리서치, 미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노동력 설문조사 결과 밝혀

국회에서부터 강단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단지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케리어와 실력을 가진 막강한 근로 인력으로 기업이나 교회에서까지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

바나리서치는 해마다 찾아오는 "세계 여성의 날" 즉 지구촌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 여성들을 축하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과연 이렇게 변화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했다(What Americans Think About Women in Power).

현재 미국 고용 시장은 변모하고 있다. 즉 여성 노동 인력이 지난 1948년에는 불과 27%에 그쳤지만, 2015년에 들어서 47%로 두 자리 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77%) 향후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나이가 있는 세대들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다. 밀레니엄들은 제3차 여성운동이 시작될 무렵 성인이 돼서 그런지, 84%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역할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반면에 엘더들은 57% 정도만 우호적이다.

신앙이란 스펙트럼으로 볼 때, 복음주의자들 과반수(52%)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정면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에 전념해왔다는 견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육아와 가사 노동에만 국한됐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자, 육아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게 됐다. 따라서 "집에서 애를 보는 아빠"의 등장에 미국 성인들 대부분(82%)는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 천장(Glass-Ceiling)"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유리 천장"은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천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고등교육 기회, 노동시장 참여율, 육아 비용, 출산휴가 조건, 비즈니스 스쿨 지원률 등을 토대로 "유리 천장 지수"가 산정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나 허리우드 영화 제작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들 과반수이상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같은 조건의 노동을 할 때 중요한 장애들이 존재한다고 본다(53%). 특히 여성들(59%)이 남성들(46%)에 비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다고 믿는다.

미국내 여성들의 지위와 노동력은 계속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러한 장벽이나 장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 그러나 32%의 복음주의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그러한 장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일까?

여성들은 (1)공평한 임금(67%) (2)승진에 있어 공평한 기회(56%) (3)일과 삶의 균형 유지(41%) 등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었다.

임금 지불에 있어 현재까지 미국인 중 74%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일한 직장에서 일할 경우 같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다고 82%가 응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에서도, 미국인들 대부분 즉 94%는 여성 CEO를 모시고 일하는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여성들(97%)은 남성들(90%)에 비해 훨씬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복음주의자들은 77% 정도만 만족한다고 설문에 응했다.

이제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3면으로 계속〉

더 많이 베푸는 풍성한 절기로 부활 맞이하자!

Relevant, Zachary K. Perkins의 기독교인의 사순절에 대한 오해 보도

어린 시절 나는 가톨릭교회의 표지판에서 'Fish Fry'와 함께 적혀 있는 '사순절(Lent)'란 글씨를 보고 부모님에게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 물었던 기억이 난다. 부모님은 단지 "가톨릭의 절기"라 대답했다. 그 당시 나는 가톨릭에 대해 잘 몰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갔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뒤 나는 사람들이 사순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곤 했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복음주의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기독교인들의 사순절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을까? 사순절이 시작된 지금,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Zachary K. Perkins)는 기독교인이 사순절을 수용하게 된 까닭으로, 이러한 영적 삶의 리듬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드려온 교회의 예배, 예전의 방식으로 사순절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What Christians Get Wrong About Lent?)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부활을 기대하던 경향이 더욱 컸다.

'사순절'은 봄을 위한 고대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 사순절은 40일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낸 40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보낸 40일을 반영한 것이다.

교회는 십자가의 서곡이 되는 신적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성경 속에서 이러한 시간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왕의 오심을 기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부활절 빈 무덤에서 종결된다. 사순절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지난 2천년 동안 교회에서 모든 금식과 축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온 몸으로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금식은 '포기하는 것' 아니라 '주는 것'이란 것 기억하고 베풀어야
하나님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 통한 자유의 선포...희망 나누기

우리가 "사순절에 무언가 포기한다"고 말할 때보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종종 "나는 하나님을 돕는 시늉만 할 거야"를 의미하곤 한다. 그러나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까지의 기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다.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거듭난 삶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전 세계 평화지역 10개국에 불과하다!

5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초/대/시/

사순절의 기도

윌리엄 바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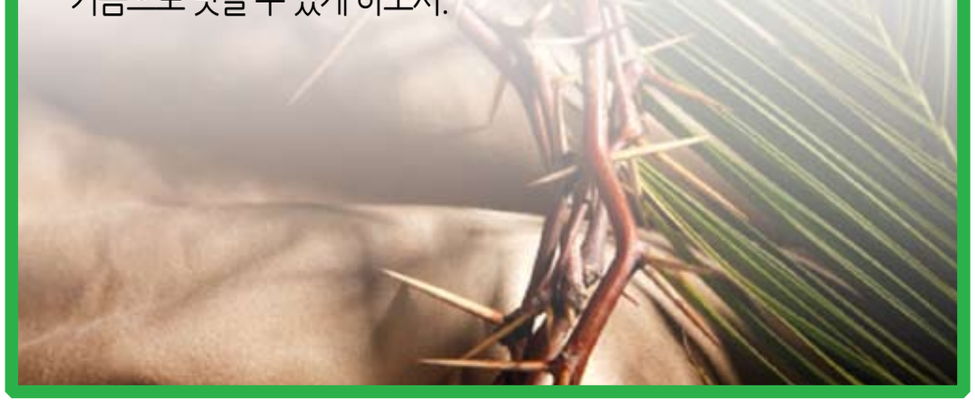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에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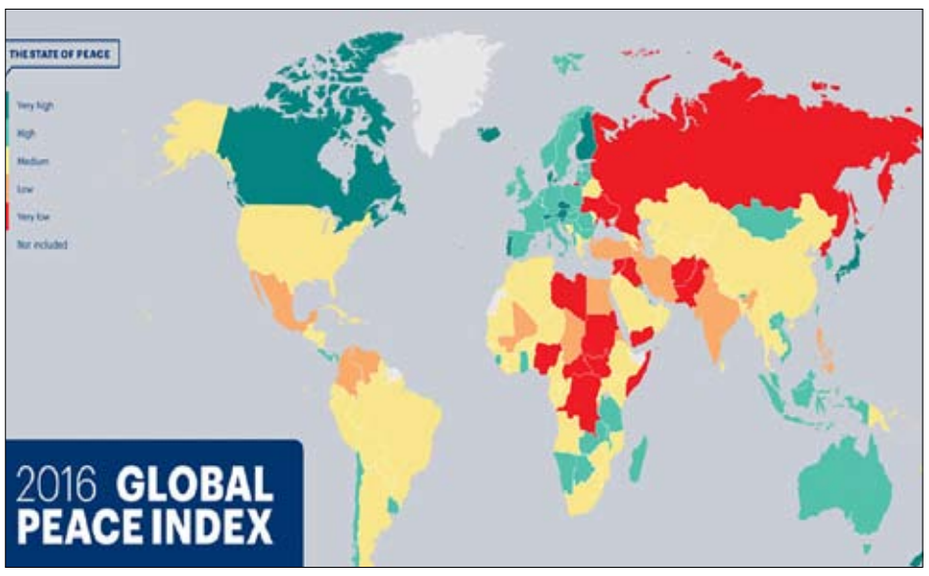
전 세계 평화지역 10개국에 불과하다!

뉴스위크, 현재 진행 중인 세계 10대 무력 분쟁지 소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 달 동안 백악관에선 언론과의 전쟁부터 '핵 재앙' '이란에 보내는 경고' 등 '전쟁'이 단골 주제로 등장했다. 지난 2월 21일엔 민주당이 주축이 된 의원 1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발효된 '무력사용권'을 담은 결의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백악관이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전 세계 테러용의자들을 상대로 한 군사적 공격을 무기한 허용하는 근거가 됐다. 의원들은 "의회가 너무 여러 해 동안 진행되는 전쟁들을 무시했다.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한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2001년 결의안의 폐기를 골자로 한 새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 "2001년 결의안이 전쟁에 대한 백지수표로 작용해왔다. 그에 따르면 지체 없이 군사력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IS 격퇴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식 선전포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국제무대에서 느껴지기 전에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은 계속돼왔다. 호주의 국제 비영리기구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평화지수(GPI)에 따르면 무력 분쟁이 없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했다(Globe Peace Index 2016).

물론 '전쟁'의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이미 여러 전쟁에 발을 담그고 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 10대 무력 분쟁이다:



▪ 아프가니스탄(2001년-)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개시했다. 미국은 탈레반이 9·11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를 보호해준다고 판단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되는 아프간전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현재의 병력 8400명으론 부족하다며 의회에 병력 증파를 요구했다.

미국, 러시아, 다른 나라 내전에 가장 많이 개입
미 민주당 주축 의원 12명 '무력사용권' 담은 결의안 폐기 촉구

▪ 이라크(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지 몇 주만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졌고 2011년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이라크 내전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 미군의 공습이 재개됐고, 급진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에 맞서기 위해 병력도 다시 파견됐다.

▪ 시리아(2011년-)
시리아의 유혈 내전이 국제 분쟁의 도가니로 비화하면서 IS의 준동에 불을 지폈다. 미국 외에도 러시아·터키·이란·프랑스가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 예멘(2015년-)
미국이 깊이 발을 들여놓은 중동 지역의 또 다른 분쟁 국가인 예멘에선 지난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첫 대테러 군사작전이 실시됐다. 여기서 여성과 어린이 10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사람이 숨졌다. 미국 국방부는 알카에다 대원 14명이 숨지고 해군 특수부대원 윌리엄 라이언 오언스 중사도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공습으로 숨진 어린이들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었다.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족 반군에 맞서기 위해 사우디 주도 아랍 연합군이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을 돕고 있다.

▪ 소말리아(1991년-)
소말리아는 내전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5년 전 공식 의회가 출범하면서 약간의 안정을 찾았지만 평화는 아직 요원하다. 미국은 알카에다와 알샤바브의 테러 위협에 맞서기 위해 소말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

▪ 나이지리아(2009년-)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테러단체 보코하람의 부상을 막기 위한 내전을 치르는 중이다. IS와 연계된 보코하람은 무슬림이 다수인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유리 천장" 에도 여성 지위 지속적 신장

〈1면에서 계속〉

비록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에 고배를 마셨지만, 대부분의 미국 성인들(85%)은 언젠가는 백악관의 주인이 여성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믿는다(각각 85%). 그리고 민주당원(98%)이 공화당원(65%)에 비해 압도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에 열정을 보인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같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보통 상식은 실제 설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성인 중 67%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위 공무원에 선출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자들(98%) 또한 국회의 남성/여성 비율 즉 성비에 만족하고, 73%는 백악관에 여성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 42%만이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성직에서의 여성의 위치다.

비록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이나 정치 영역에서 여성 리더십을 표용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교회에서의 여성 리더십이다. 일단 여성 성직자나 목사 안수에 79%의 미국인들은 수용한다. 그러나 성경을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따르는 복음주의자들은 39% 정도만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들'은 62%가 받아들인다. 놀랍게도, 카톨릭 교인들이(80%) 개신교인들(74%)에 비해 여성 성직자에 우호적이다.

더 많이 베푸는 풍성한 절기로 부활 맞이하자!

〈1면에서 계속〉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음을 기억시키는 영적 절기이다. 신학자 그레고리가 "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 나는 그와 함께 영광을 입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적게 가지려고 하고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마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구제와 자선을 행해왔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 섬김과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명확해진다.

풀턴 쉰 대주교는 "우리는 사순절에 잡초를 뽑는 것으로 악덕을 근절하거나 좋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 미덕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이상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명확합니다. 악의 흉악함이나 증오에 의해 위대하게 되지는 않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에 의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금욕주의와 고행은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완성은 자비입니다. 참회는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향해 우리의 자아를 개방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아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라고 하였다.

아무도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쉰 대주교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사순절은 무덤이 비워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풀어졌다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의 봄이다. 또한 슬프고 비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봄이다. 금식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선포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희망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2면에서 계속〉

▪ 남수단(2013년-)

2011년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지만 2013년 12월 살바 키르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인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 추종자들 간의 충돌로 내전이 일어난 이래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1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남수단 정부는 지난 2월 20일 "4월까지 약 490만 명에 긴급 식량 공급이 필요하다"며 기근을 선포했다. 기근 선포 국가가 나온 것은 2011년 소말리아 이래 처음이다.

▪ 우크라이나(2014년-)

친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하야를 요구하는 민중 시위로 내전이 시작됐다. 유럽에서 20년 만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내전이다. 야누코비치가 축출되자 러시아는 남부 자치구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계 반군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대치 중이다.

▪ 리비아(2011년-)

2011년 시작된 '아랍의 봄' 혁명으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은 혁명군이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거했다. 그후에도 미국은 리비아 일부 지역을 장악한 IS를 제압하기 위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다.

▪ 인도/파키스탄(2016년-)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 분쟁으로 양국은 두 차례나 전쟁을 치렀다. 그 후 지난해 9월 인도령 카슈미르에 있는 인도 육군기지가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자 인도는 그 공격의 배후가 파키스탄 정부라며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공격했다. 이로써 다시 분쟁이 격화돼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채플린 임상목회 (2)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치유하신 하나님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저녁 근무를 하던 날 갑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페이저(비퍼)가 진동을 하며 긴급 호출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응급실이었고 연락을 한 사람은 응급실 RN이었습니다. 환자를 방문하기 전에 간호사를 만나보니 전화 목소리에서 짐작한대로 눈물을 머금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나 간호사들은 수많은 응급환자들을 상대하며 지내는 관계로 담대함으로는 병원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감정 통제가 안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간호사는 그들 중에서도 베테랑으로 치밀하고 냉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응급실 환자의 호출시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컴퓨터로 환자의 신상정보나 진료 기록 차트를 확인할 틈도 없이 방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당 간호사로부터 환자에 대해 들었을 때 왜 그 간호사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침통해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제 겨우 9살짜리 여자 아이였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실려와 있었습니다. 가증스러운 범인은 이 아이를 맡아 위탁 양육을 맡고 있던 수양 부모였습니다.

간호사 옆에는 카운티 아동 보호 서비스에서 나온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저에게 이 아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출생 후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보호시설에 있다가 6살부터 위탁 양육 가정(Foster Care Home)으로 보내졌는데 이 집에서 1차 성폭행을 당하고 다시 보내진 다른 양육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또 다시 2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저항하다가 얼굴과 복부에 심한 타박상까지 입었고 그 가정에 있었던 다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그 사건에 대해 내용을 들은 간호사가 마치 자신의 어린 딸과 나이가 같은 환자 아이를 대하고는 오열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간호사의 상한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에게 옆에 잠시라도 같이 있어주도록 부탁을 하고 환자 아이를 만나기 위해 응급실 내의 환자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방 앞에 갔을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제 겨우 9살 먹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이곳에 실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만나서 무슨 말을 어찌 해야 할지 저 역시 너무나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먼저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급실 진료팀이 일단 상처를 응급조치는 하였지만,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응급실 한 쪽에 배정된 작은 방안 침대 밑에 숨은 채 아무도 만나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들어오려는 인기척만 나면 더 깊이 숨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하얀 메모지 몇 장과 가위를 부탁하였습니다. 일전에 교통사고로 한 쪽 다리를 잃고 마음 문을 닫아버린 십대 청소년과 종이 접기를 하면서 마침내 말문을 열게 된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져온 종이로 종이학을 만들었고, 문을 조금 열고 방문 안에 놓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종이학을 주려고 왔다고, 원하면 다른 동물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다시 문을 닫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후에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와 방문 안에 있는 종이학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가져온 색지로 더 화려한 종이학 두개를 만들어 안에다 집어넣었고, 아이는 그것마저 갖고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열렸고 방안으로 들어온 채플린에게 아이는 제가 고양이도 만들 수 있는지, 자신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아이가 경계심을 풀자 비로소 간호사가 가져온 샌드위치와 수프를 먹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먹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얼굴만 만드는 간단한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었더니 그 고양이 얼굴에 크레용으로 눈, 코, 입과 수염을 그렸는데 그 얼굴 하나마다 그 아이의 세미한 감정이 담겨있었습니다. 분노의 감정도 격하게 그려졌고, 두려움의 모습도 생생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슬픈 얼굴은 자신의 얼굴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얼굴은 아무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비워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마침내 환하게 웃는 귀여운 고양이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고양이는 이렇게 웃고 있냐고 물었더니,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와 놀이도 하고 무섭지 않아서 웃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이의 마음 상태가 웃고 있는 그 고양이 얼굴처럼 잠시나마 고통스러웠던 기억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종이학도 배워서 자기가 만들어서 저에게 직접 선물로 주고 싶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는 저에게 다가와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며칠 후 안정을 되찾고 다른 안전한 보호 시설로 퇴원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회복지사는 그 아이가 종이학을 하나 주면서 채플린 아저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상처받은 어린 영혼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편집자주: 모든 임상목회컬럼에 기록된 이름과 지명은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tdspark@gmail.com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제5차 정기총회 개최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OF WORLD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 제5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어 회원
(각교단 총회장과 증경총회장, 각 지역 교협, 목사회,선교기관등의 전,현직회장)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아 래 -

□ 일 시: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5:00 ~ 3월 21일(화) 오후 6:00
□ 회의장소: 퀸즈 한인교회(이규섭목사시무) (도착 접수처)(12pm-4:00pm)
89-00 23 Ave, East Elmhurst NY 11369
□ 일 정: (개회 예배)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5:00
(총회회무처리) 2017년 3월 21일(화) 오전 9:00
(선교 포럼) 2017년 3월 21일(화) 오후 2:30~7:30 마침

준비위원회: 5차총회 준비대회장 : 황의춘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 송병기 목사 , 전영현 목사
세기총 총괄본부장 : 이재덕 목사 , 총무 : 이대우 목사,
협동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김 진하 목사, 부 : 육민호목사
회계 : 안경순 목사, 예배 : 김연규목사, 기획 : 윤오성 목사
선교 : 문석호 목사, 정책 : 김희복 목사, 안내영접 : 한기술 목사
사업본부 : 이종명 목사 , Press홍보 : 김병모 목사
□ 문 의: 세기총 총괄 본부장 이재덕 목사 (917-345-4700)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수석상임회장 황의춘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송병기 목사 전영현 목사 총괄본부장 이재덕 목사 서 기 박광철 목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특별한 마을 아나니(Anagni)

아나니(Anagni).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다. 여기저기 산재한 이태리의 수많은 마을들은 언제인지 모르나 누군가가 그 지역으로 가서 먼저 터를 잡음으로 시작된 공동체이지 싶다. 그런데 지상의 수많은 마을들의 중요성은 그 곳에서 어떤 위인이 태어 났느냐로 구분한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분을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응대했다. 당시 나사렛은 몇 십 가구가 불과한 작은 산동네로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밀라노에 사는 아들 가족이 방문하여 며칠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아들이 중세 도시로 잘 보존되어있는 아나니를 가고 싶다고 하여 이참에 잘됐다 싶었다. 아나니는 로마에서 약 70Km로 떨어진 곳이다. 나폴리 고속도로에서 휘우지(Fiuggi) 톨게이트로 나가서 아나니의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면 산위에 있는 아담한 동네를 만나게 되는 데 그 동네가 바로 아나니(Anagni)다. 현재 인구는 약 2만 1천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니 기원전 3세기에 시작된 오래된 도시다.

오래된 마을이라서 그런지 이 곳은 중세에 교황이 4사람이나 태어난 곳이다. 마을의 크기에 비해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당시 교황은 전 구라파에 막강한 힘을 구사했던 왕 중 왕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네 사람의 교황은 이노센트 3세(Innocent Ⅲ, 1198-1216), 알렉산더 4세(Alexander Ⅳ,1254-1261), 그레고리 9세(Gregorius Ⅸ,1227-1241), 보니파시오 8세(Bonifacius Ⅷ, 1294-1303)이다. 크지 않은 마을에서 교황이 네 사람이나 태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싶다. 그래서 그런지 교황들의 전기를 보면 이 마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무척 더웠던 여름철에는 교황들은 좀 더 시원한 곳을 찾아가곤 해야 했다. 이 마을은 산등성이에 형성 되었기에 로마보다는 좀 더 시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네 교황들이 다스리던 때는 십자군전쟁이 있었고, 안 밖으로 수도원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다. 불란서에는 왈도파의 출현이 있었고, 거기에 알비파, 또한 아시시의 프랜시스의 수도원, 그리고 불란서의 클레르보 베르나르도에 의한 시토수도회 등등, 어쩌면 영적으로 저 깊은 곳에서 뜨거운 진리의 용암이 펄펄 끓고 있는 시기라고나 할까?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 챌 수 없었지만 말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인생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마을, 그런 중에 12세기에서 13세기에 4명의 교황을 배출한 마을이 과거의 유물들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광장에 있는 식당에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갔더니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다. 6세기의 건축물이라고 한다. 오리지널 벽의 한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거친 민낯은 역사의 케케한 냄새를 뿜어내고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아나니. 그 역사란 것이 사람들의 삶의 단편을 차곡차곡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치 있는 것이든 가치 없는 것이든 말이다. 그 교황 중에 보니파시오는 불란서의 필립왕과 주교 서임권과 또한 성직자 과세에 대하여 대항했다. 이런 것은 왕이 성직자들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곳에 피신한 보니파시오(BonifaciusⅧ) 교황을 체포하기 위해 쫓아 온 알비파 기욤 드 노가래가 있다. 그는 알비파인 할아버지가 화형 당했기에 교황에 대한 존중심이 없었다. 공의회에서 교황을 기소하기 위해 필립프 4세는 1,600명의 군대를 노가래에게 주어 필요하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교황을 붙잡아서 불란서로 데려오라고 명했다.

보시파시오는 아나니에 있는 자신의 궁에서 빌리프 4세를 파문하는 칙령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다. 교황은 군사들에게 체포당했으나 아나니 사람들이 용감하게 교황을 비호하자 군대는 물러나고 말았다. 고집대로 했다가는 대량학살이 불가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존심 강한 보시파시오는 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1303년 세상을 떠났다.

단테는 신곡에서 보니파시오를 용광로에 거꾸로 매달려있는 제 8 지옥에 집어넣었다. 그는 자신의 동상을 수없이 건조했고, 동성애적 혐의에 대해서 손을 맞잡고 문지른 정도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1300년 성년을 선포한 교황이다. 고해성사를 하고 베드로 성당이나 라테란 성당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약 20만 명의 순례객들로 로마는 넘쳐나게 되었다.

당시, 용서 받기 위해 신자들이 낸 봉헌금은 갈퀴로 긁어모아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때 순례 객 중에는 시인 단테도 끼어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순례객들의 모습을 신곡에 그렸고 교황을 지옥에 떨어진 자로 묘사했다. 그는 9년 동안 교황의 자리를 지켰다. 이곳에는 그의 뮤지엄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가 다녔던 그 길을 그가 떠난 지 7백년도 더 된 지금 나는 걷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 뭐라고 충고할까?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성길 목사
(커네디컷 주사랑교회)

"오직 은혜로"
(사도행전 9:10-19)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집사님 부부의 간증적인 고백의 글을 읽었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아주 쉬웠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이 예전에 비해 훨씬 평안하고 보람됩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앞서 예비하심

핍박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변곡점을 이루는 터닝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순간적으로 사울은 눈을 멀게 됩니다.그리고는 "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자가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앞을 볼 수 없기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 성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이었지만, 시력을 상실한 그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다메섹에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기에, 한껏 기대하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사울을 영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는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침묵의 시간이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만 여겨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두신 사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여호아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사흘이 지나서야 사울 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실체를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며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떠신가요? 혹시 사울과 같이 사방을 볼 수 없고, 사방이 막혀있고, 삶의 무게가 견디기 버거울 만큼 힘겹게 지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정지해있고, 하나님마저도 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답답한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그 즉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응답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콜링하실 때 선지자들이 대답했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로 보건대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반응할 정도로 영적인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신앙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웰즈(H.G. Wells)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란 단편에 보면, 대주교는 날마다의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Yes, what is it?)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열려 있고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행22:12).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울이 당신을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그를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울은 주님의 대적자로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하여 다메섹에서 가장 훌륭한 당신의 제자를 예비해두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차선의 것이나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3면으로 계속〉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숫자의 성매매자들을 체포하다!

21세기인 지금 그것도 미국 안에서 아동성매매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은연중 알면서도 눈감고 있던 참으로 사악한 어두운 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하고 미국에서 엄청난 숫자의 어린이 성매매자들과 일반 성매매자들까지도 체포했다는 반갑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FBI 보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성매매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오바마 정권 때와는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정권은 2014년까지만 해도 최고 400명 정도 체포했었고 그이후도 아동성매매나 여성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한,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자 대통령이 되자마자 1개월 만에 1500명이상의 아동 성매매자들을 체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성매매자들과 특별히 아동 성매매자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참고로, 성매매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나이가 평균 13세라고 합니다.

2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때 발표하기를 "인신매매야말로 국내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년간 연방정부에서 다룬 문제이지만 지난 4주 동안은 더 집

권운동단체들이 미국안의 여성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라고 참으로 시끌벅적하게 그리고 매우 성적으로 부끄러운 사진들까지 자랑스럽게 들고 시위를 했었는데, 이런 진보주의 여성운동권 리더들은 정말로 여성의 권리와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무슬림여성들이나, 미국 안에서 이렇게 여성들과 아이들의 성노예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언급이나 도움을 주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 때 나누겠습니다.

미국 안에서까지 전염병처럼 번지는 성노예 인신매매 문제를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해결하겠다고 약

"정말 미묘하며 맛있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Le Fou는 Gaston(Le Fou의 동성애 상대)처럼 되고 싶어 하고 키스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감독이 말하기를 영화의 끝을 말해줄 수 없지만 '아주 좋은 독점적인 동성애 순간이 될 것'이라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뉴스에 반발하며 10만 개 이상의 보이콧 서명을 했습니다.

알라버마에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극장에서는 이 영화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극장 주인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볼 수 없는 영화를 보여주기 싫다'고

트럼프 취임 한달 만에 아동성매매자 1,500명 체포...5년전 약속 지켜
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에 동성애 표현...긴급 반대 서명운동 전개

트럼프행정부에 의해 첫 한 달 만에 1,500명 이상의 어린이 성매매자들을 체포하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아동 성매매를 막아야 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 10월 8일에 트럼프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납치해가는 성적 변태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런 추악한 어린이 성매매 사건이 미국 안에 너무 많아지고 있다. 나쁜 이들을 빨리 잡아들여 벌을 주고 어린 다음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라고요.

무엇보다, 트럼프는 다음세대에 대한 열정(passion)이 높은 사람으로 그들의 미래를 미국의 미래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힌 적도 있습니다.

한 예로, 그는 자신만 담배와 술, 마약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도 담배, 술, 마약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자녀들도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Fox 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특별기획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류 미디어는 이 많은 체포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았지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어린이 성매매 약탈자의 체포 사례들:

△1월 27일, 테네시에서 42명 약탈자 체포 △1월 8-22일, 미시간에서 16명 약탈자 체포 △2월 5일, 일리노이에서 108명 약탈자 체포 △2월 8일, 텍사스에서 178명 약탈자 체포 △2월에 버지니아에서 11명 약탈자 체포 △2월 14일, 플로리다에서 42명 아동 포르노 약탈자 체포 △1월 29일,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려 474명의 아동성매매자들 체포하고, 28명의 어린이 성노예 피해자들을 구출.

현재 전 세계에 450만 명의 성노예가 있고 그중에 98%가 여자와 어린이입니다. 노동 노예까지 모두 2천1백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팔고 있는 집단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천5백억 불이나 된다는 보고서입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끔찍한 숫자이고 수입입니다.

지난 2월에 미국에서는 여성인

속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켜주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서부터 온 세계 속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21세기의 사악한 성매매가 끝나고 모든 성노예 여성, 아이들이 하루속히 해방되도록 기도해야합니다.

긴급! 자녀들의 눈, 귀, 생각을 보호해주세요!

'동성애 사랑'을 홍보하는 어린이 영화-'미녀와 야수'의 위험성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에서 1991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긍지 행사인 'Disney World Gay Day-디즈니 동성애의 날'을 가지며 특별히 지난 몇 년 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성애 선두주자로 알려진 디즈니 회사가 오는 3월 17일에 오픈하는 어린이 영화인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때문에 또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녀와 야수" 어린이 영화 속에 동성애를 대놓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감독이 말하기를 조연인 Gad가 동성애 장면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영화감독 Condon은 말하기를 알라버마 같은 극장들 때문에 슬프다고 이야기하며, 이 어린이 영화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면서, 동성애 내용을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한 후회도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디즈니가 "죄를 뻔뻔하게 선전한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즈니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운동가들에게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디즈니가 동성애를 충분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나온 Le Fou를 동성애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긴급서명운동:

영화 '미녀와 야수'의 사례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단체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단체와 가정들이 긴급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로 가시면 간단한 서명이지만 우리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장례시나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예배와 예식 중 어느 것이 올바른 용어인지요? 그리고 예배 순서에 있어 봉헌(헌금)기도 다음 축도 시간으로 되어 있을 시에 봉헌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끝맺지 않고 바로 이어 축도를 하는 것이 옳은지요?

-오렌지카운티에서 존 박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례나 결혼의 단어사용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미국교회는 장례예배나 예식을 영어로 Funeral service나 Burial Service로 사용합니다. 대체로 죽은 고인의 시신을 앞에 두고 예식을 진행하는데 시신 없이 하는 것을 Memorial Service라고 합니다. 미국연합감리교단의 예배규범에는 "Service of Death and Resurrection"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Service는 예배나 예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예배학에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1)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고 2)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례예배에서는 주로 설교자들이 고인을 추억하면서 설교나 순서에서 고인의 좋은 점을 많이 높이고 알리는 경우가 많기에 하나님만을 높이

"장례예식, 결혼예식" 단어사용이 적절
예수님 이름으로 헌금기도 후 축도해야

고 영광을 돌리는 측면에서 볼 때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과 내용면에서 엄밀히 분석해보면 장례예배나 결혼예배라는 단어 사용보다 "장례예식, 결혼예식"이라는 단어사용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례식을 영결예배나 영결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별을 말하기에 성경적이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2세기 초에 트라야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때에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Plini)는 황제에게 기독교도들에 대해 몇 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관을 메고 가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찬송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같은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들께서 예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헌금기도와 아울러 축도하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헌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맺지 않고 바로 축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답은 기도와 축도의 구분을 밝히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소원을 아뢰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맺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예배 제일 끝에 하는 축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한 회중을 축복(Blessing)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 끝마치고 바로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축복)을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 북동부의 부족들

대부분의 태국 북동부지역 부족들은 메콩강과 그 지류를 따라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 그들은 몬 크메르(Mon-Khmer)어(語)족이나 타이어(語)족에서 유래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모국어와 타이(Tai)어 또는 라오(Lao)어 등 이중언어 사용자들이다.

원래는 중국이 이들의 본토였으나 한족의 압박을 받아 점차 남하하기 시작했고, 이동 경로에서 부딪히는 많은 종족들을 정복했다. 10세기경에 이르러 그들 중 많은 수가 태국에 정착했다.

태국 북쪽 지역은 본래 6세기에 건국된 초기 몬(Mon) 왕국이 있던 땅이다. 13세기에 몬 왕국은 타이(Thai)에게 정복됐고, 19세기 초에 타이족은 몬족을 축출하여 메콩강 지역에 살게 했다. 오늘날 이 부족들은 강을 중심에 두고 양쪽지역으로 자리잡아 살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지역의 지배문화들, 특히 라오족와 타이족의 문화에 흡수됐다.

삶의 모습

태국 북동부 부족들은 주로 농부들이다. 그들은 쌀, 과일, 채소 등과 같은 다양한 작물을 경작해 자체 소비하거나 상업용으로 이용한다. 그들은 주변 종족들보다 더 가난한 편이어서 주로 타이족으로부터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을 얻는다. 마을주민들은 타이족들에게 육류와 채소를 주고 의류나 소금 같은 필수품을 얻는 물물교환을 하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족들은 주변 민족들, 특히 타이족과 라오족의 관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부족들의 문화에 많은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 예로써 그들은 더 이상 화전농업과 같은 전통농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타이족 농사법을 따라 계단식 논에다 논벼(wet-rice)를 재배한다. 그들은 또한 라오족과 같은 방식으로 소를 키우고 밭을 경작하는데 물소나 황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 고기잡이와 사냥 또한 주요한 활동들이다.

이 부족들에게 있어서 촌락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조직인데 주로 촌장이 각 마을을 다스리고 아버지가 각 가정의 대표가 된다. 적용되는 사회도덕규범은 각 부족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푸타이족(phuthai)과 니야우족(Nyaw)은 족내혼만이 가능한데 반해 다른 부족들은 이웃의 종족들과 결혼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마을 가옥은 대개 나무나 대나무로 짓는다. 가옥의 형태는 고상식(땅 위에다 대나무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집을 지음)이며, 주로 주거지 옆에 농토가 있다. 가금류과 돼지, 염소는 고상식으로 지어진 집 밑으로 생긴 공간에서 자유롭게 키워진다.

대부분의 종족들은 이웃 종족들의 문화적 특성에 적응했지만, 푸타이족을 비롯한 몇몇 종족들은 또 다른 종족들이 이미 앞서 들어간 주변 산악지대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족들이 타이족과 라오족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의상, 언어, 교육방법, 주택양식, 공공 행정 등이 타이족과 라오족 문화의 영향으로 모두 변화했다. 단지 몇 가지 문화적 특성만이 남아있는데, 사에크족(Saek) 여성들의 유명한 "원무(round dances)"나 소족(So) 여성들이 머리에 걸쳐서 목에 묶고 다니는 실크 스카프, 푸타이(Phuthai) 여성들이 손으로 짠 독특한 색깔과 디자인의 실크, 니야우족(Nyaw)의 전통적인 "심령치료사(spirit doctors)"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신앙

불교는 기원전 329년에 태국에 소개됐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부족들이 불교도들이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불교 요소들을 전통적인 정령신앙(애니미즘)과 혼합했다. 이런 미신적 경향으로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대상이나 물체들에게 현세의 도움을 빈다.

죽은 조상에게 물질의 복과 현세의 지혜를 구하는 조상신 숭배가 또한 보편적 현상이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들이 질병을 준다고 믿는다. 가족들은 대개 집 근처에 자그마한 제단을 마련해서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낸다. 사람들은 각 자연 요소들마다 연관된 다양한 영들이 있으며 또 각 마을에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는다.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는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정령숭배사상을 강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심령술사(spirit doctors)를 전적으로 따른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 지역의 모든 부족들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선교단체가 각 부족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소족(So)만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쪽복음)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부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쪽복음도 없는 상태다. 현재 푸타이족 사역에만 기독교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그 밖의 기독교 문서자료, 기독교 방송, 추가적인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IS 개종 거부한 맹인 여성 크리스천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죠. 난 당신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극단적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개종을 강요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맹인 크리스천 여성이 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교도 살해 등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단적인 종교는 믿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주인공은 50대 후반의 마리얌 페트리우스씨. 쿠르드 계열 뉴스 미디어인 루다우(Rudaw)는 2년 전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IS에게 붙잡혔다가 1주일 전 탈출에 성공한 페트리우스씨의 인터뷰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페트리우스씨는 인터뷰를 통해 IS의 개종 요구를 어떻게 거부했는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등을 설명했다.

페트리우스씨에 따르면 기독교인 등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포로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할 수 없다면 목숨을 내놔야 한다. 그녀는 IS의 요구를 용감하게 거절했다.

"IS 군인이 '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지? 왜 크리스천이 되려는 건가'라고 묻더군요. 전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죽이고 겁을 주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죠."

페트리우스씨는 인터뷰를 계속했다. "IS 군인은 내 말을 듣더니 '내가? 전혀 아닌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맞아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I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수십㎞를 걸어 나와 구조됐다고 한다. 페트리우스씨는 운이 좋은 경우다. IS의 개종 요구를 뿌리치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 많은 크리스천들이 개종 요구를 거부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2015년 10월 시리아에서는 11명의 크리스천 선교사와 아이들이 개종 요구를 거부했다가 IS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됐다. IS는 아버지의 개종을 요구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라크 성공회 캐논 앤드류 화이트 목사는 2014년 12월 15세 미만의 아이들 4명이 IS의 개종 요구를 뿌리쳤다가 참수됐다고 고발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IS 대원들이 '무함마드 선지자를 따르겠다'고 말할 것을 강요했지만 아이들은 네 명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따른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드 운명 달라지나…美 "긴장" -中 "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일 탄핵 결정 소식에 한반도 주변국들도 앞다퉈 입장을 내놓으며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차기 정부와의 '변함없는 협력'을 강조했고, 중국은 박 전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사실을 비판했다.

미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대행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뒤 "탄핵은 한국의 국내 문제로 한국 국민과 민주제도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결정한 선택이며 미국은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친구, 파트너"라며 "한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생산적인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이 교체돼도 사드 배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로 일본은 한국 새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2015년 12월 한·일 합의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에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웃국가인 한국이 어서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재임 때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줬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고 배치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중국 언론들도 사드 배치 결정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신경보는 '한국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유력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중립 또는 반대 의견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관영 CCTV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 헌재 판결을 생중계로 연결해 한국의 정권 교체 전망을 다뤘다.

미 언론들은 미·중 갈등이 커져가는 와중에 한국의 정치상황이 급변한 점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한·미의 대응전략을 재검토하고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남으로써 수십 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박정희식) 권위주의적 정치와 경제질서가 퇴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5월 대선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회의적이고 북한과 중국에 더 동조적인 지도자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NN은 홈페이지에서 탄핵 소식을 전하며 'Park Out(박근혜 퇴장)'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AP통신은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의 기막힌 몰락(stunning fall)"이라고 표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평화집회로 민주주의 30년 만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진단했다.

NHK방송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야권 후보들은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제 한국민의 분노는 재벌을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헌재 선고 2시간 만에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재가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앞으로 일반 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국외 정세를 이처럼 빠르게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反이민' 2막…이라크 빼고 6개국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부 수정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입국금지 대상이던 이라크가 제외된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세계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존 행정명령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쏟아져 또다시 충돌이 불거질 조짐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을 90일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라크 정부가 비자 검증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 절차를 갖춰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미군과 함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척결에 나선 이라크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존 행정명령에선 미국에 무기한 입국할 수 없었던 시리아 국민도 여행객은 90일, 난민은 120일간 한시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여도 그린카드(영주권)를 가졌다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행정명령에서 반발이 가장 컸던 부분이다.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시점은 오는 16일이다. 기존 행정명령은 서명 직후 발효돼 전 세계 공항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서명 주체인 트럼프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주요 각료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한 새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해를 끼칠 사람의 입국을 막을 권리"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원안과 같은 '이슬람 금지' 조치일 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마르 자드와트 ACLU 이민자권리프로젝트 국장은 "원안처럼 치명적 하자가 있는 축소 버전"이라며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대표는 "수정 행정명령은 증오와 두려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고 비난했다.

기존 행정명령 반대 운동에 힘을 보탰던 기업들도 수정 행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공동설립자는 SNS에 "출신 지역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처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일부 주 법무부가 수정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원안 발효 당시 즉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끌어냈던 밥 퍼거슨 워싱턴 법무장관은 조만간 수정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을 내비쳤다. 마크 헤링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수정 행정명령이 가진 메시지는 종교 차별과 자유 침해 등 원안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더 강경해질 전망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CNN에 "국경 통제 수위를 추가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권 6개국 외에 13-14개국에 대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했다. 또 "추가 신원조회를 도입하면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서 "이슬람권이나 중동국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밀입국 방지를 위해서는 "밀입국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도 '反이민 수정행정명령' 소송 가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이 내놓은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에 가세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지난 9일 하와이 주가 호눌룰루 연방지법에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워싱턴·메릴랜드·뉴욕·오리건·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주 등이 잇따라 동참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이민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정 행정명령이 규제 범위를 전보다 좁히기는 했지만 종교적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한 투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좋은 나라' 1위는 스위스…미국, 7위 추락

각종 랭킹 매기기 전문인 미국 온라인 매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국가(Best Country)' 순위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80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순위(19위)보다 4계단 낮아지기는 했지만 올해 조사 대상국이 지난해보다 20곳 늘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빠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스위스는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됐다. 캐나다와 영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 3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였던 독일은 4위로 밀렸고, 일본은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미국은 4위에서 7위로 처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조사가 이뤄져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20위로 한국보다 상위에 랭크됐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지역별로 최고의 국가를 꼽는 관점이 달랐다. 유럽과 미국의 설문 참여자들은 스위스를, 중동·아프리카에선 일본을, 아시아에선 독일을 최고의 나라로 지목했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80개국 2만1000여명(각 분야 전문가 포함)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산정했다. 설문에는 국가 영향력, 시민의식, 기업가 정신, 삶의 질, 역사유산 등 9개 테마 아래 65개 세부 질문이 사용됐다.

한국은 9개 테마 중 국가 영향력(11위)과 기업가 정신(13위)에서는 순위가 높았지만 나머지 테마에선 20위권 밖이었다. 특히 문화적 영향력(31위)과 역사유산(44위), 모험관광의 매력도를 뜻하는 어드벤처(67위) 등 문화·관광 관련 분야는 유독 저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이번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지난해 이 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의 핵심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 영향력 톱5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란은 종합순위가 79위에 그쳤음에도 국가 영향력만은 14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유럽사법재판소, "직장서 히잡 금지 차별 아니다"

유럽연합(EU) 내 기업들은 앞으로 직원의 히잡 등 종교적 복장 착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 내 기업이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을 규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터 등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이 착용하는 히잡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슬람 복장과 이민자 통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각 국가에서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2003년 벨기에에서 일하는 민간경비업체 G4S의 접수원 사미라 아쉬비타는 히잡 착용을 금지시킨 회사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벨기에 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법률 해석을 요구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EU가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G4S의 히잡 착용 금지 결정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내린 결정이어서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복장 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 등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복장을 금지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제엠네스티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편견의 또 다른 문을 연 꼴"이라고 입장을 냈다.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정직한 개혁자’ 루터, 성경필사하며 내면점검 경험적 신학 소개
그루터, 토마스 아켐피스 모두 중세교회신학 틀 벗어나지 못해

루터와 ‘공동생활 형제단’의 관계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관계
‘경건한 삶과 헌신’,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으로 나타나

작은 씨앗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대부분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대면하였던 현실이었다. 특히 초기에 로마교회를 직접 대하면서 결별 과정을 겪어야 했던 마르틴 루터의 경우는 더욱 그리하였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경험해야 했다.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그렇다면 루터의 종교 개혁이 가능하였던 것이, 과연 그의 강직한 성격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직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루터를 “용감한 개혁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를 더 잘 대변해주는 것은 “정직한 개혁자” 라는 표현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속이려하지 않았다.

과연 개혁 사상이 그에게 생겨난 것은 어느 때일까? 가치관의 정립과 생각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어린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겨졌다. 물론 본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씨앗이 향후 종교개혁이란 열매를 맺을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 그가 걸었던 신앙과 개혁의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었던 것임에 분명하다.

1483년에 태어난 루터는 13세에 불과한 나이에 학업을 위해 가족을 떠나게 되었다. 1497년부터 1년간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서 중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경건운동의 회원인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이 운영하는 학교였다. 나아가서 루터가 18세부터 에르푸르트(Erfurt)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다. 이 곳에서 루터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멘토인 요한 스타우피츠(Johannes Staupitz)를 만나 지도를 받게 된다. 스타우피츠는 튜빙겐 대학에서 ‘공동생활 형제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던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 1410-1495)에게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미 형성된 씨앗

‘공동생활 형제단’은 데벤터(Deventer)라는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에서 제럴드 그루터(Gerard Groote, 1340-1384)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다. ‘공동생활 형제단’은 12세기에 변화를 경험한 중세 교회의 신학의 흐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12세기에 설립된 대학에서 신학 교육이 시행되면서 스콜라주의 신학, 즉 신앙에 기초한 이성을 중심한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변증학이 중심되어 사변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의 수도원 신학과 결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도원 신학이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묵상과 신비스러운 내적 관계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독일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7)를 중심으로 신비주의가 발전하였다. 철학을 강조하는 스콜라 신학에 맞서 하나님과의 합일을 강조하였는데, 범신론적인 요소를 과감히 수용하였다. 이에 반해 그의 제자인 요한 타울러(John Tauler, 1300-1361)는 하나님과의 내면적 체험을 강조하면서도, 범신론자라는 의심을 벗어나는데 치중하였다.

‘공동생활 형제단’의 창시자인 그루터 역시 독일 신비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신비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적 신앙 체험과 성경적 경건이 지닌 가치를 인시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성품을 본받는 신앙을 중시하게 되었다.

강한 씨앗

‘공동생활 형제단’을 신학적 흐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세 스콜라 신학과 종교개혁 신학의 중간에 놓여 있다. 그루터는 어려서 뛰어난 학문적 실력으로 인해 파리에서 유학하였다. 신앙의 길을 벗어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병을 앓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고백하고 회심하였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엄격한 금욕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에 매진하였다. 그의 변화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분명히 정신병을 앓는다고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루터가 최고의 가치로 삼은 것은 사람들에게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내적인 변화였다. 그리스도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본 받는 삶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그루터는 중세 교회 신학의 틀에 갇혀있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하였고 연옥설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세 교회의 신학과 역행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개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나아가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란 언급을 주저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교회 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수도원 안에 감추어져있는 비도덕적인 모습과 영적 방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았다. 특히 성직 매매를 큰 죄로 여기고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어도,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기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그루터의 사상이 전해지면서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수도원 밖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작게 시작된 연합체가 날로 수가 늘어나 확장되었다. 그들은 기도와 명상, 그리고 독서와 금식 등에 집중하였으며, 나아가서 육체적 노동과 검소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서 성경과 기독교 고전을 필사하는 일에 중요시 여겼는데, 이들을 통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전에 대량으로 책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나누며 그를 본 받는 일이었다. ‘공동생활 형제단’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 이라며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이 생겨났지만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생명력을 소유한 씨앗

그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를 따를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말을 따라 실행에 옮겼다. 1386년, 그로터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던 플로렌티우스 래드빈스(Florentius Radwijns, 1530-1400)을 중심으로 빈드샤임(Windsheim)에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향후 이곳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켐피스(Thomas à Kempis, 1380-1471)이다.

토마스 아켐피스는 그의 스승 래드빈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도록 가르쳐주었으며, 경건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자기의 스승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서적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기록된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인물이라고 추앙할 정도였다.

토마스 아켐피스는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형제단에 아낌없이 주었다. 이곳에서 함께 지내던 형제들의 열정적 신앙과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성경책과 다른 경건 서적을 읽었으며, 글을 쓰는 법도 배웠다. 1413년에 사제의 직분을 받았으며, 1425년에 수도원 부원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가 친형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 실천적 신앙에 대한 교훈을 염두에 두고 저술한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무엇보다 자신이 도움을 얻으려 하였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그루터와 래드빈스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에서 내적 겸손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혹시 독자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접하게 된다면, 그가 이 글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할 것을 권장한다. 그는 아직 중세 교회의 신학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 글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싹이 튼 씨앗

루터가 마그데부르크에서 중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구르터와 래드빈스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루터는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한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나아가서 그가 에르푸르트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직접 성경을 접한 사실을 이미 언급하였는데, 그 성경이 바로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필사한 필사본이었다.

루터는 평생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성경 전체에 드러나 그리스도를 접할 때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이다. 향후 그리스도를 중심한 십자가 신학을 전개할 때에도, 단순히 지적이며 논리적인 이론을 뛰어 넘어 경험적인 신학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루터와 ‘공동생활 형제단’의 관계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루터는 분명히 ‘공동생활 형제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인정된다. 루터는 ‘공동생활 형제단’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중심한 경건한 삶과 헌신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관계에 머물러 있던 단체가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실천하는 자들이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해 나아가면서 ‘공동생활 형제단’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였다. 그들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나아가서 루터가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편지를 작성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동생활 형제단’의 루터의 종교개혁 사이에 근본적인 ‘불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어린 루터의 마음 안에 심겨진 신앙의 씨앗이, 종교개혁이란 꽃을 피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일이 지닌 가치를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된다.

covenantcho@yahoo.com

제 5 회 미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십자가는 고통이요 수치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위로와 쉼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세요! 정중히 초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날
남모르는 은혜와 치유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 상: 목사, 선교사, 전도사 및 사모
일 시: 4월 2일(주일) 오후 6시 -3일(월)오후 11시까지 1박 2일
장 소: 비전하우스 (32949 Oracle Hills Rd. Palmdale CA 93550)
준비물: 성경찬송, 슬리핑 백, 세면도구, 슬리퍼, 개인 상비약

(일체의 경비는 없습니다)

미주십자가영성원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el : 213-675-8291, 818-360-1339

리더십 코멘터리 (38)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내안의 리더십 DNA를 깨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탁월한 리더는 '거울과 저울'...다른 사람을 먼저 잘되게 해야

리더십 DNA-공정 · 책임감 · 민첩 · 말과 행동 일치시키는 추진력

지도자들, 과연 '리더의 자격'이 되는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다.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리더는 시대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역사가 선택한 지도자는 도덕적인 확신과 분명한 목표가 있다. 현대인들은 뛰어난 머리보다는 뛰어난 인품을 갖고 감동적인 수사법으로 대화 나누는 리더를 원한다. 최근 전문기관의 리서치에 따르면 담임목사 청빙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교, 성품, 목회철학, 평판, 경력 등으로 조사되었다.

리더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리더는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최우선시 함으로써 리더의 자격을 얻는다. 동기부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리더의 주된 임무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최고가 되지 않고서는 리더 역시 최고가 될 수 없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잘되게 하는 것이 탁월한 리더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얻는 리더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며, 따르는 이가 많을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탁월한 리더이다. 혼자만 잘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귀한 기회를 제공하라. 그것이 함께 하는 공동체가 발전하고 새로운 리더를 통해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탁월한 리더는 '거울과 저울' 같아야 한다. 거울이 흔들리면 분명하게 볼 수 없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게 잴 수 없다. 탁월한 리더는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갖고, 매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최근 기독교계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자기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성도들이 목회자를 걱정하고 목회자들의 일탈 때문에 부끄러운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지도자들, 과연 '리더의 자격'이 되는가?

공감과 조정이란 새로운 리더의 자격

인간 세상에는 어디든 리더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리더라고 모두 리더가 아니다. 조직의 흥망성쇠는 리더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리더가 리더다운 면을 보일 때 존경을 받는다. 리더가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 사익을 챙기고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조직은 한순간에 허물어진다. 담임목사가 능력도 부족하고 고집도 세다면 분명한 답을 찾기 어렵다. 교회 구성원들은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속으로 애를 태우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교회는 중병을 앓게 된다.

리더의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리더에 대한 사회의 개념 규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수직적이고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문화에 익숙한 탓에 '리더는 곧 지배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삶의 모습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곧 권력을 거머쥐는 것이란 그릇된 환상이 그것이다. 그렇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이틀과 감투를 쓰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된다.

21세기 현대리더십은 지배와 강요대신 공감과 조정이란 새로운 리더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38년 동안 총 49개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전설적인 축구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경은 그의 저서 '리딩(Leading)'에서 선수들 마음에 공포보다는 존중을 심어주려 한 것을 그의 리더십의 비결로 꼽았다. 눈높이를 맞추며 한 발씩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리더, 그럼으로써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게 하는 리더, 이제 우리도 '공감과 조정의 리더'를 한번 가져볼 때가 되었다.

리더의 DNA를 깨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회생활을 통해 리더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직분 자나 목회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늘 생각해 보게 된다. 리더는 다음의 4가지 DNA를 깨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리더는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이란 주관적인 개념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공정성이 객관적이 되려면 일을 결정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또 공정함이란 내가 기여한 만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 너무 많은 혜택을 기대할 때 깨지게 된다. 왜냐하면 공정함이란 결과의 공평성(equity)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그들 각자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대가를 공정하게 분배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나눔의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리더는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리더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이다. 구성원과의 오랜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리더 자신이다. 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항상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종종 사람들을 위험 회피적으로 만들고, 발전적인 시행착오를 억제한다. 하지만 발전적인 시행착오가 없다면 현상에 안주하게 되고, 조직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의사결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감수는 리더의 몫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면, 리더는 구성원의 신뢰를 잃게 된다. 구성원의 믿음과 그들의 진정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결정하고 구성원이 행한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로, 리더는 민첩해야 한다. 민첩성이란 작은 환경 변화도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에 바로 대응하는 능력이다. 미세한 변화도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과 같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리더의 또 다른 자격이 될 것이다.

넷째로 리더는 업무추진력이 뛰어나야 한다. 추진력이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기획능력이라기보다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말만 앞서는 '스마트 토크의 함정(smart talk trap)'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추진력이 리더에게는 꼭 필요한 자질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분야에서는 "Hear one, See one, Do one"이라는 금언이 있다. 하나를 들으면 그것을 실제로 관찰해보고, 직접 해보라는 말이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만 본 것은 기억하고 한번 해보면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자를 양성하는 우리의 신학교육현장은 어떤가? 혹시 말만 앞서는 무능한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위기의 기독교와 교회를 되살리는 길

사람이 리더를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과 다르다. 사람이 생각하는 리더는 경험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재능이 있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를 감행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리더로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그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현재의 기독교는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횡포와 비리를 일삼고 있다. 이를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위기의 기독교와 교회를 되살리는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성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욱 낮아지는 자세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것이 예측하지 못할 위기가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 리더들이 갖춰야할 자격이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지금은 내안의 리더십 DNA를 깨우고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따라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예수님의 렌즈

학교가 커리큘럼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이전에 없던 몇 과목이 새로 생겼다. 그 중 한 과목이 Urban Immersion(도시체험)이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도심지에 위치한 호텔에서 3박4일을 머무르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주변의 다양한 문화권을 소그룹으로 함께 관찰하고 관찰하면서 느낀 것을 그들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발표하는 과목이다. 지도교수로서 나는 이번에도 함께 학생들과 호텔에 머물면서 수퍼비전을 하였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3박4일을 보내는 자체가 우선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첫 경험이 된다. 각 그룹이 돌아가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인도했는데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찬양하고, 각자의 언어로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다양한 인종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첫날 아침 경건의 시간에 우리 프로그램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다. 도시 구석구석을 다닐 때 평소에 가졌던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의 눈으로 도시와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귀한 메시지였다.

아침식사 후 학생들이 그룹별로 도시를 체험하기 위해 떠나고 나도 동료 교수, 직원과 함께 걸어서 학교 사무실로 갔다. 학생들에게 권한대로 우리도 천천히 도시를 관찰하면서 걸어가자니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전혀 못 봤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끔씩 걸어 다니기도 한 길이었지만 별 생각 없이 어느 장소에 도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빨리 걸을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대칭을 이룬 디자인의 아름다운 빌딩, 고풍이 넘치는 회당과 교회 등 도심 한 복판에 남아 있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한 어디론 가로 향하는 노숙자들의 힘겨운 행보도 눈에 들어왔다. 첫날 하루를 보내고 와서 짧은 리포트를 하는 시간에 학생들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만나 대화한 사람들, 평소에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쳤던 노숙자들이 눕지 못하도록 칸을 막아놓은 벤치, 노숙자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 때문에 도무지 찾기 어려웠던 공중 화장실 등 본인들의 평소 삶과는 생소했던 경험을 나누었다.

우리 한국학생들은 그동안 주로 유태인, 히스패닉, 중국, 일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연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두 그룹이 흑인 지역을 방문하였다. 흑인 지역을 갔던 학생들은 흑인 지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프라이드치킨 식당에서 점심도 사먹고 식당 직원들과 대화 후 함께 사진도 찍고, 그 지역의 가장 성장하는 교회도 방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길에서 만난 몇 흑인들의 계속적인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욕설과 고함소리에 겁이 나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는 보고였다.

3일 동안을 나도 본교 여직원과 함께 한인 타운을 이곳 저곳을 다녔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어서인지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은 직원은 매워서 나도 별로 잘 못 먹는 감자탕 국물을 맛있다고 열심히 먹더니 젊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며 먹는 붕어빵 아이스크림이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젊은 사람들 틈에 긴 줄을 기다려 산 붕어빵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다고 자기는 도시체험이 아닌 한국체험을 하였다고 즐거워하였다.

한인교회는 다민족이 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한인중심으로만 뭉쳐있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우리지 않는다는 연구조사들이 많다. 요즈음은 많은 교회들이 노숙자 사역 등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 민족이 아니면 불편해하고 또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다. 이제는 우리 한인교회도 "다름"이 주는 불편함을 벗어나 의식적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그 분의 귀한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음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렌즈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 볼 때가 된 것 같다.

lpyun@apu.edu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강사 라홍채 목사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횃불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도서주문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데이튼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 Div. 이상)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부목사 포함)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한국어, 영어)

제출 서류: 이력서(한국어, 영어 각 1부, 가족 사진 포함)
본인 소개서(가족 포함)
목회계획서
목사 안수 증명서
졸업증명서(신학대학원)
최근 설교 2편(CD 혹은 동영상)
2인 이상의 추천서(이름, 전화번호, 자필 싸인)

제출 기간: 2017년 4월 20일

제 출 처: Immanuel Korean Presbyterian Church(청빙위원회)
10425 Dayton Lebanon Pike Centerville, OH 45458
Email: skkimfamily@hotmail.com

-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이메일로 접수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비밀 보장)

임마누엘장로교회
Immanu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10425 Dayton Lebanon Pike Centerville, OH 45458

목회서신

신앙의 유전(遺傳)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한국의 광림교회 김순애 권사의 칼럼, "부모의 이중적 신앙태도 11가지"를 읽고 많이 공감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집안의 경조사에 교회 일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아서, 친척들의 원망을 듣는다. (2)헌금은 많이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3)새벽예배, 철야예배에 참석한 후 피곤하다며 늦게까지 자고,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 (4)교회 일 때문에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녀들이 종종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 (5)평소에는 기도나 성경을 읽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기도한다. (6)교회나 목회자에 대해 늘 불평, 불만을 말한다. (7)자녀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행동은 없이 늘 말만 앞세운다. (8)주일 안 지키고 여행을 자주 간다. (9)고3 때나 시험 때는 교회에 안 가도 된다고 가르친다. (10)교회를 자주 옮긴다. (11)십일조 헌금이 들쑥날쑥하며, 설교시간에 졸고, 예배시간에 지각하고, 축도도 마치기 전에 교회 문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고, 나쁜 악영향만 끼치고 있는 현대 교회 부모 된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위선적 신앙의 현주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부모에게서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통계 조사기관인 바나 연구소의 1997년 조사에 의하면, 13세부터 18세 사이에 속한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40%는 자기 형제와 자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답변한 반면, 78%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청소년들 중의 57%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39%만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는 싫든지 좋든지 자녀들에게 교사요 지도자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자녀 잘 기르기 5가지 비결"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1)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것 (2)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 (3)아이들 에게 살아가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 (4)아이들을 주 안에서 따끔하게 훈계할 것 (5)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경에 이미 계시된 대로,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말세지말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못된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목숨을 담보로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우리 1세대들은 살만큼 살았으니까 순교의 각오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살기 위하여 다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부모들은 헌 신적인 신앙의 솔선수범과 진리를 보수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도 불사하는 모범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남기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른 신앙의 5가지 유전"을 제시합니다. (1)잘못된 교리와 이단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며, 말씀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2)말을 앞세우기 전에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신앙의 모습을 평소에 자녀들에게 늘 보여준다. (3)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4)하나님중심, 교회중심, 예배중심, 말씀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 (5)잘못된 신앙의 행동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 철저하게 고쳐나간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노후대책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 은퇴 연금과 건강보험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전하고 남길 것인가를 걱정할 때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WMU는 ATS로부터 교회음악박사과정과 OC기독교상담대학원 분교 승인을 받았다

한인학교 최초 교회음악박사과정 ATS 인준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OC분교도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가 미국의 최고 권위있는 신학교 학위 인증기관인 ATS로부터 한인신학교 최초로 교회음악박사과정(DCM) 및 O.C 기독교상담대학원 분교 인준을 받고 그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동 대학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정명 총장은 "저희 월드미션대학교가 한인대학교는 최초로 ATS 음악박사과정(DCM) 인준을 받았다. 또한 한인신학교에서 최초로 인준 받은 기독교상담대학원 OC분교가 인준됐다. 이 소식을 미주한인교계에 알리고 기쁨을 함께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교 음악박사과정 디렉터인 윤에스더 교수는 "WMU는 10여년 넘게 학사과정과 석사과정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이 교회에서 지휘자, 반주자, 성악가로 활동하며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에 연주과정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ATS 인준된 박사과정을 통해 더 많은 지식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음악사역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한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음악활동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교 석사과정 디렉터인 윤임상 교수는 "1년반 정도 박사과정 인준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한인학교 중 최초로 학위인준이 되는 것이라 부담이 있었다. ATS에서도 많은 부분이 요구됐다. 특별히 교회음악과 내 실용음악 분야는 한인학교는 물론 미국학교에서도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DCM에서 실용음악 쪽을 워십아트(Worship Arts)라 정하고 클래식과 함께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WMU의 교수진은 총 7명으로 윤임상 교수와 윤에스더 교수, 비키 무토 교수를 비롯해 도널드 뉴엔 교수, 윤학원 교수 이귀자 교수 등이 석좌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WMU는 또한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기독교상담대학원 티칭사이트를 개설했다. 김현경 상담학과 교수는 "LA에서 석사과정이 2012년부터 매우 의미 있는 과정으로 자리잡았다. 오렌지카운티에도 상담 사역하는 성도들이 많고 이에 대한 필요가 많아 개설하게 됐으며 2학기 째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본교 상담학과 졸업생들은 KYCC와 와이낫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교에서 상담학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복음주의상담학 자격증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자격증은 미국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한국은 물론 선교지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WMU에 재학중인 학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하여 340명이 재학 중이고 38명이 교회음악과정(학사, 석사), 상담학(원격 캠퍼스) 70명, OC캠퍼스에 16명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준호 기자〉

제6차 세이연 총회에서 한선희 세기연 소장과 박형택 한기연 소장이 MOU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단상담연구소들과 MOU 체결

세계이단대책연합회 제6차 총회, "소리치는 자들" 주제

세계이단대책연합회 제6차 총회가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소리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지난 회기 약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로 Baja Mexico Carnival Cruise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기의 큰 보람은 첫째, 11월중에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연합세미나를 계획했다는 것. 둘째, '두날개'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이 '두날개'의 잘못된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 셋째,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이제 그 한계를 느끼고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직접 구원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이하 한이상)와 세계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이하 세이상)와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체결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MOU체결로 인해 서로 적극 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담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기로 한바 미주를 중심으로 해외에 산재해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세이연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순수하게 정치적 외압이나 금권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회원들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세계이단대책연합회〉

드림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찬양하고있다.

15교회 참여...헌금은 '전도부인사역'에

KUMC남가주여선교회연합회 제 28회 선교찬양제

남가주여선교회연합회 제 28회 찬양제가 12일 오후 4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샌디에고 난타팀의 오프닝 연주로 막을 올린 찬양제는 최경애 회장의 환영사, 박혜란 부회장의 기도가 있은 후, 몽골 사역 현장을 동영상으로 관람하고 봉헌시간을 가졌다. 이날 드려진 헌금은 '전도부인사역'을 위해 쓰여지게 되며 목회자 부부 찬양팀의 헌금송이 있었다.

이어 진행된 찬양제는 밸리교회("감사의 축제 찬양"), 금란교회("주와 같이 길가는 것"), 드림교회("마른 뼈들이")를 비롯해 언약, 라구나힐스, 옥스나드, 남가주주님, 은혜, 토랜스, LA복음, 밴나이스, 라팔마, 로스펠리즈, LA, 윌셔(지휘 장상근) 등 15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찬조 출연으로 무대에 오른 총남선교연합회 임원들의 찬양은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갈채를 받았다.

연합감리교(KUMC)여선교회(회장 최경애)는 여성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조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 도모와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직됐으며 매년 찬양제를 통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

〈이성자 기자〉

APU 한인동문회 주최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론 세미나에서 김정한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APU한인동문회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론' 세미나

강사 박명하 선교사, 김정한 선교사

APU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론 세미나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교 LA센터에서 열렸다.

먼저 김정한 선교사(KWMF사무총장, 선미니스트리)가 '북미주 한인교회 중소형교회 선교동원력 증대를 통한 강소형 선교교회운동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지역교회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것"이라며 "선교 상황이 많이 변했다. 안수 받은 목회자보다 장로 권사 등 평신도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이 더욱 자유로운 편"이라 설명했다.

그는 "창의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직업인과 기술자들의 입국은 무제한 허용한다. 이들은 현지인들과 접촉도 용이해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선교훈련을 받게 하고 파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선교사(온두라스)는 "교회는 목회자의 비전과 지도력에 따라 방향설정이 된다"며 "선교적 교회로 담임목사가 이끌어갈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알게 하고 갈등을 극복해낸다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미 개신교의 특징은 복음적이다. 모든 교회가 기적을 체험했다. 대부분 토착적인 교회다. 선교사가 아닌 스스로 은혜 받아 대부분 지원 없이 감당하고 10대, 20대 전도자들이 많다. 예배특징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며 대중전도 집회가 많다, 또한 그들은 순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술 담배를 비롯해 세속적의 삶을 사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철저하다. 무명의 전도자들(버스안, 시장 등)로 인해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부정한 정부로 인해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 기독교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 소그룹으로 시골엔 매일 밤 예배로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기한협 영성치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찍고있다

3월 월례예배 및 영성치유 세미나

미주기독한의사협회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12일 오후 3월 정례모임을 열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영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헴시바 선교사의 A국 선교보고에 이어 샤론최 한의사의 AK 테스트(근육테스트진단법)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서병길 요르단 선교사의 요청으로 요르단의 태권도 선교를 위해 김성일 초대회장, 이기미 전회장, 이써니 부회장, 김샤론 총무, 김유나 회계, 장재수 이사, 정종오 회장이 후원한 도복 22벌을 전달했다.

협회는 4월과 5월에는 8시간 보수교육으로 "중풍치료"와 "한방통합치료" 를 김용훈 이사장이 강의하며 4월 29일에 프레즈노 몽족 의료선교와 5월말 메모리얼 연휴 때 가족이 함께하는 영성 수련회를 개최한다.

▲문의: (213)703-8541, 500-6393

〈기사제공: 미주기독한의사협회〉

남가주연목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찍고있다

"시대적 사명 감당"...회장 김기동 목사

남가주 연목회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 연세동문 목회자회 회장 이취임 예배가 13일 오전 11시30분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1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담임, 신학과 73학번)는 "연세대학교 연목회가 작은 모임이지만 역할이 중요하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큰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연세동문이 한마음 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종곤 목사(수석부회장/사우스베이선교교회 담임) 인도로 시작된 이취임 예배는 고재원 목사(증경회장)가 기도했으며 남상국 목사(부회장)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증경회장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담임)가 '백부장이 알아봅니다'(막 6:37-3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16대 회장 이종렬 목사가 이임인사를, 17대 회장 김기동 목사가 취임인사를 했다.

이어 이종렬 직전회장과 전지용 총무에게 공로패를, 직전회장과 신임회장에게 신임장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 본회 회계 권영대 목사(성악 81학번)가 축가를 불렀으며 최순길 목사(남가주교협회장), 이호우 목사(OC교협회장), 김종대 장로(OC한인회 회장), 김지백 동문(남가주 연세대 총동문회 이사장)이 축사했다.

이날 행사는 증경회장 윤경중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2017년 교회학교 교육 컨퍼런스

뉴욕어린이전도협회(회장 최종대 목사)가 주최하는 2017년 교회학교 교육 컨퍼런스(Children's Ministry Conference)가 4월 1일(토) 오전 9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75달러(3월 14일까지 등록하면 65달러).

문의: (312)286-4646

C&MA 한인총회 제34회 정기총회

기독교선교연합(C&MA) 한인총회 제34회 정기총회가 4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일리노이 펠로십교회(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440-5700

"제3회 쉼과 영성 수련회"

사모 영성수련회인 "제3회 쉼과 영성 수련회"가 4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뉴저지 라마나욧기도원에서 열린다. 3년 연속으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예년과 같이 'Joe 미니스트리'가 주관하고 대표 이상목 목사가 주강사로 선다. 또 애리조나 구세군교회 오기현 장애란 부부사관이 영감의 찬양과 사모실천 특강,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만호 이진아 목사부부가 성령특강과 웃음치료, 필라시온성교회 한상경 목사가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다. 수련회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문의: (646)361-6591

씨존 기독뉴스 창간 8주년 및 CBSN) 개국 2주년 기념감사예배

씨존 기독뉴스 창간 8주년과 뉴욕기독교방송 개국 2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3월 26일(주) 오후 6시 뉴욕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린다. 대표 문석진 목사는 2009년 4월 기독교종합미디어 그룹 씨존(Christian Zone)을 시작으로 인터넷신문 기독뉴스(www.Kidokews.net)과 종이신문 기독뉴스 그리고 24시간 인터넷 라디오 방송 뉴욕기독교방송(CBSN)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347)538-1587

뉴욕목사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탐사프로젝트 이스라엘-요르단 투어 중 참가자들이 쿰란동굴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탐사프로젝트 이스라엘-요르단 투어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탐사프로젝트로 계획한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지난 2월 27일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50명이 참석해 종료됐다.

50명의 탐사여행팀은 뉴욕의 JFK를 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 후 욥바, 기리앗, 가이사랴, 요셉기념교회, 가나혼인잔치기념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팔복교회, 가버나움을 거쳐 요르단으로 이동했다.

모세 기념교회와 놋뱀상, 가나안을 조명할 수 있는 느보산에 이어 성경지명 '셀라'의 고대도시였던 페트라를 탐사하고, 예수님이 침례받았던 요르단강 침례터와 사해, 쿰란,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시험산을 조망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겟세마네교회 등과 38년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베데스다 연못,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와 골고다 언덕을 걸었다.

특히 이번 일정 중에는 선상 성찬식, 금요특강, 축제예배 등이 있었으며, 회장 김상태 목사는 출발에 앞서 "성경의 땅을 밟으며 고고학, 역사학, 지리학, 언어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탐사를 한다는 것은 교회지도자로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목회자들의 재충전과 교육의 극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기사제공: 뉴욕목사회〉

임원교체...노회합병 제안엔 부정적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일원 4개 노회 봄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뉴욕일원 노회들이 지난 6일과 7일 그리고 14일에 걸쳐 일제히 제 80회 봄 정기노회를 개최했다(뉴욕남노회는 12회). 임원 교체와 신입회원 가입과 이명, 탈퇴 등이 있었고 총회준비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동노회가 제안한 뉴욕일원 5개 노회 합병에 대해서는 반대 혹은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4일로 예정됐던 뉴욕노회 정기노회는 폭설예보로 인해 16일로 연기됐다.

뉴욕서노회

뉴욕서노회 정기노회는 7일 오전 10시 뉴욕천성장로교회(담임 이승원 목사)에서 열려 신임 노회장에 이종태 목사를 선출했다.

공천을 통해 선출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종태 목사 △부노회장 이종열 목사 △서기 임동열 목사 △부서기 이영우 목사 △회록서기 오영상 목사 △부회록서기 박종옥 목사 △회계 한병헌 장로 △부회계 이승호 장로.

신임 노회장 이종태 목사(심령이 가난한교회 담임)는 "부족한 사람이 노회장이 되어 부담이 많지만 행복한 노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노회원들도 함께 우리 서노회가 어느 노회 못지않은 행복한 노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회무를 통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시창, 박민우, 주원열, 김학수 목사의 뉴잉글랜드노회로 이명건을 다루었다. 교회로는 보스톤은혜장로교회(우시창 목사)와 보스톤서부교회(김학수 목사)가 포함돼 있다. 또 체리힐평강교회(박종옥 목사)가 지역교회와 통합하고 "사랑장로교회"로 교회이름을 바꾸었다.

뉴욕만나교회 부목사 조현웅 목사의 노회가입을 허락했으며, 든든한교회 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담임목사로 청빙된 남일현 목사(44세)의 목사회원 가입도 허락했다.

한편 뉴욕동노회가 제안한 뉴욕지역 5개 노회 통합 건은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대로 부결됐다.

뉴욕 서노회 노회원 단체사진

뉴욕 동노회 노회원 단체사진

뉴욕 남노회 노회원 단체사진

가든노회 회원들이 권오창 목사 안수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했다.

뉴욕동노회

뉴욕동노회 제 80회 정기노회가 7일 오전 10시 불레싱교회(담임 박희열 목사)에서 열려 노회장 황상하 목사와 부노회장 이상만 목사를 유임했다.

이날 공천을 통해 선출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황상하 목사 △부노회장 이상만 목사 △서기 허민수 목사 △부서기 오상현 목사 △회록서기 김영일 목사 △부회록서기 이신권 목사 △회계 정진윤 장로 △부회계 육광수 장로.

뉴욕동노회 황상하 목사가 노회장에 유임됨으로 뉴욕 5개 노회 통합이 계속 추진하게 됐다.

회무처리를 통해 뉴저지복된교회와 신철용 목사의 노회가입을 허락했으며, 생수의강교회 이상만 목사가 청원한 교회폐쇄 청원을 수락했다.

한편 정기노회가 열린 블레싱교회가 빌립보교회(담임 신성능 목사)와 통합해 교단을 탈퇴하고 RCA 교단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이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뉴욕남노회

뉴욕남노회 정기노회는 6일 오전 10시30분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려 신임 노회장에 이재덕 목사가 선출됐다.

공천을 통해 선임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재덕 목사, △부노회장 이선용 목사, △서기 조덕남 목사, △부서기 임흥섭 목사, △회록서기 박준영 목사, △부회록서기 이효창 목사, △회계 이형근 장로, △부회계 윤창권 장로.

뉴욕남노회는 분립 후 6년 동안 지난 노회의 규칙을 따랐으나 규칙당회록부를 통해 노회규칙을 만들어 다음 노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총회 법정비용 보조금 액수 등의 결정은 임원에 일임했다.

회무시간에는 뉴욕센트럴교회 부목사인 조영찬 목사를 목사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4월 6일부터 2일간 필라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컨퍼런스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한편 장시간에 걸쳐 논의된 뉴욕일원 5개 노회합병에 대해서는 임원회에 일임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키로 결정했다.

가든노회

가든노회 정기노회는 7일 오전 10시30분 뉴저지개혁장로교회(담임 박형기 목사)에서 열려 신임 노회장에 박형기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공천부 보고를 통해 선임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박형기 목사 △부노회장 허상회 목사 △서기 김재호 목사 △부서기 이종식 목사 △회록서기 이준성 목사 △부회록서기 박해창 목사 △회계 송현천 장로 △부회계 허철회 장로.

안건처리를 통해 뉴욕제일장로교회 조성훈 목사가 청원한 권오창 씨의 목사안수 및 교육목사 청빙을 허락했다. 권오창 목사는 권영국 목사(뉴욕하나교회 담임)의 아들이다.

한편 뉴욕동노회 노회장으로부터 제안된 뉴욕일원 5개 노회 통합 건은 구체적 대안이 미비함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기독교총연합회 제5차 총회 뉴욕에서

20, 21일 퀸즈한인교회...황의춘 목사 대표회장 확실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제5차 총회가 3월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세기총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연합사업을 펼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취지아래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가운데 2013년 설립됐다.

미주에서는 장석진 목사가 2대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5회 총회에서는 세기총 창립주역인 황의춘 목사의 대표회장 선출과 취임이 확실시 된다.

뉴욕에서 열리는 5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세기총 수석상임회장 황의춘 목사와 공동준비위원장 송병기 목사, 총괄본부장 이재덕 목사 등 관계자들이 3월 8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기총과 정기총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13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다. 세기총 정관에 의하면 각 교단 전현직 교단장, 각 지역 교협과 목사회 전현직 회장이 정회원이지만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목사와 장로는 지역회원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미서부지역 한인교단 일제히 정기노회

7일 KAPC 남가주노회, 9일 KPCA 서노회

날짜	KAPC	KPCA
2/27-3/1		카서노회(밴쿠버영광교회)
3/6		서남노회(주님의빛교회)
3/7	남가주노회(토렌스주님의교회)	영어노회(English) LA YoungNak Celebration Church
3/9		서북남노회(몬트레이영락교회)
		서노회(주향교회)
		서북노회(시애틀큰사랑교회)
3/13		서중노회(훌러톤장로교회)
3/14	북가주노회(상항중앙장로교회)	LA 노회(만나의 교회)
	LA 중앙노회(세계소망교회)	
	로스앤젤레스노회(남가주든든한교회)	
3/27-28	가주노회(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미주 서부지역 KPCA와 KAPC교단 봄노회가 일제히 시작됐다. 사진위쪽은 주향교회에서 열린 KPCA서노회 모습, 사진 아래는 토랜스주님의교회에서 열린 KAPC남가주노회 모습

해외한인장로회(KPCA)와 미주예수교장로회(KAPC) 봄노회가 지난 2월 27일 KPCA 밴쿠버영광교회에서 열린 카서노회를 시작으로 3월 27일 KAPC 가주노회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7일 오전 10시 토렌스주님의교회에서 열린 KAPC 남가주노회(노회장 정철 목사)는 정철 목사 사회로 시작, 이상진 목사가 기도했으며 황성국 목사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권영국 목사가 '야곱의 민족, 에서의 민족'(창33: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동진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명화영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회무처리에서 토랜스주님의교회 이영희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됐다.

9일 주향교회에서 열린 KPCA 서노회(노회장 김신 목사)는 노회서기 장요한 목사 별세로 인해 공석이 된 노회서기에 부서기 박경희 목사를 서기로 임명했으며 나성영락교회 5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박은성 목사의 노회 가입인사가 있었다.

또한 나성영락교회 한익수 외 29인의 고발인들의 고발건에 대한 위탁재판(재판국장 강진웅 목사) 판결문을 발표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나성영락교회 회복운동을 결성해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며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추진한 자들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피고발인들을 6개월 근신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좌측 미서부지역 KAPC, KPCA노회 일정 참조.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교회학교 교사세미나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교회학교 교사세미나를 11일(토) 오전 9시30분 CIU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로니 아바로스 전도사가 말씀과 찬양과 부활절 찬양과 율동, 케티 빈센트 교사가 은혜롭고 재미있는 오브젝트 레슨. 여병현 목사와 이옥희 전도사가 부활절 활동 자료 교실, 이진희 선생이 부활절 크래프트 시간을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토랜스제일장로교회 2017 상반기 부흥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2017 상반기부흥회를 회복과 치유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이동원 목사(한국지구촌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17일(금) 저녁 7시30분, 18일(토) 아침 6시, 저녁 7시30분, 19일(주일) 1-3부예배시간이다.

▲ 문의: (310)618-2222

코로나감사한인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코로나감사한인교회(담임 백승찬 목사 1811 S. Lincoln Ave. Corona, CA) 창립 10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26일(주일) 오후4시에 갖는다.

▲ 문의: (951)734-1909

나성영락교회 2017년 영락장학생 모집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2017년 영락장학생을 모집(이민목회자 자녀장학금 포함)한다. 대상은 기독교인이며 신청은 장학금 웹사이트(scholarship.youngnak.com)에서만 접수한다. 마감은 4월21일(금) 오후5시(PST)

▲ 문의: (323)227-1400

LA기윤실이 세금보고 캠페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사무국장 조주현 목사, 대표 박문규 박사, 전대표 허성규 교수.

"세금보고 정직하게 합시다"

LA기윤실, '세금보고 캠페인' 소개 기자간담회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문규)은 지난 9일 LA 기윤실 사무실에서 '세금보고 캠페인'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허성규 교수(LA기윤실 직전대표)는 "한국인이 '법을 안 지키는 민족'으로 치부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법을 지켜 존경받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며 정직한 세금보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무와 회계 영역의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교회의 회계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을 때 이에 관한 권한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조정하게 되고 권한을 확보한 특정집단의 다음 목표는 그러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방법을 찾게 된다. 그것이 장기 집권, 또는 세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분쟁으로 가기도 하므로 불공정한 일은 우리가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외부감사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LA기윤실 사무국장 조주현 목사는 "미국의 비영리단체(교회, 선교회, 학교 등)는 IRS에서 면세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면세를 인정받는다. 비영리 단체는 990이라는 회계보고를 정부에 하게 돼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중에 유일하게 교회는 990의 회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 전통에서 나왔으며, 또한 교회의 회계보고는 교인들의 공동회의를 통한 직접적 보고를 하고 있기에 국가에서 교회를 신뢰하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교회가 재정을 허위, 거짓, 개인의 치부, 등의 비윤리적인 곳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의 몇몇 교회가 이러한 국가의 신뢰와는 다르게,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오용하는 사례와 교인들에게 정확한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자 기자〉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5대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44년간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떠나지 않도록"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취임 및 임직자 은퇴식

나성영락교회 5대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이 12일 오후 4시에 거행됐다.

박은성 목사는 취임사에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이나 어느 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 은혜였다"며 "지난 44년간 영락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새로운 종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온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미주사회와 한국교회가 더 큰 사역 감당케 하실 것이다. 목회길 걸어가는 동안 영락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혜로 이뤄지기를 고백하는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성영락교회 임시당회장 지영환 목사 집례로 시작된 취임식은 5대 담임 박은성 목사 소개, 서약, 기도, 공포 및 취임패 증정, 성경 및 헌법 증정이 있었다.

이어 서정운 목사(전 미주장신대 총장)이 권면을, 김신 목사(KPCA 서노회장/주향교회), 제프리 콴 클레어몬트신학교 총장, 그리고 마이클리 영락셀러브레잇교회 담임목사가 축사했다. 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임성빈 교수의 축하영상이 소개됐으며, 본 교회 혼성중창팀이 특송했다.

한편 취임식 전에 거행된 1부 예배는 박성규 목사(KPCA부총회장/주님세운교회)가 기도했으며 노진걸 목사(KPCA전총회장/훌러톤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롬14:15-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은성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3부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은 당회서기 이지수 장로가 은퇴자를 소개했으며, 장로 집사 권사 은퇴기념패 수여, 기도로 이어졌다.

이날 모든 순서는 유영기 목사(KPCA총회장/나성북부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은성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와 동대학원(M.Div)을 졸업했으며 콜럼비아신학교(Th.M), 드류대학교신학대학원 박사과정(Ph.D)을 졸업했다. 서울여대 기독교 대학원 강사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면목교회 교육전도사. 아틀란타 베다니교회에서 교육전도사. 뉴저지 참빛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으며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뉴저지 산돌교회와 서울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헌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청년예배: 오전 10:30
주 일 학 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헌재 결정 존중하고 화합의 길 열자"

한국교계 대표단체들 대통령탄핵 입장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앞으로 선출될 지도자는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놓고 다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을 행복의 미래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정하기를 요청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이 종결됐다"면서 "이제는 분노와 울분과 격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우리 모두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달라져야 한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끝이자 시작의 날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모두의 분열과 대립, 혼돈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밝은 미래를 시작하는 첫 날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장총은 성명에서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국론은 분열되었으며 갈등과 혼란으로 불신과 상처가 깊었다"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와 국민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그러므로 탄핵 인용은 누구의 어느 편의 승리나 패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적 생각과 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한국 교회와 한장총은 국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위하여 협력하며 기도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로서 사회통합과 치유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CCK는 "이 시간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국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자"면서 "정부는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치권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정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라"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세력들은 역사 앞에 잠잠하라"면서 "신앙을 빌미로 사회적 대립을 불러왔던 일부 기독인들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설동욱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탄핵선고를 기독교인은 보수와 진보진영을 떠나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탄핵 인용 판결서는 정직한 나라를 세우라는 국민의 주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치룰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는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로 제1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세워서 정경유착의 폐습을 청산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경제부흥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서 통일시대를 열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법률 개정안'

특정종교에 국고 퍼주는 정부 종교편향 논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를 사찰 담장을 넘어 공양물(供養物) 생산을 위한 사찰소유 토지까지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지사는 사찰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사찰의 건축 및 방재시설 설치, 음악회 개최 등 사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사찰 건물과 동떨어진 토지까지 보호지로 지정하고 국가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지원, 각종 불교행사 지원, 불교기념관 건립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엄청난 재정이 불교계에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사무총장은 "종교편향은 봉은사역 논란이나 템플스테이처럼 행정과 예산이 특정종교에 집중될 때 발생한다"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지나친 국고지원과 행정편의 제공은 해당종교는 물론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토지의 1%, 국립공원 내 토지의 7%가 사찰 소유로 알려져 있다"면서 "법률에 따라 국가예산은 사찰 수리와 방제·방범시스템 구축에 투입되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도 "법안은 보존지를 넓히자는 개념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보존지의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면서 "혹시 종교편향 문제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조정·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최근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불교계의 거센 항의에 부닥치자 지난 6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국민일보, 한국교회 개혁과제 관련 설문조사

국민일보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900명과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속화와 물질주의'(교인 41.9%, 목회자 33%)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목회자의 자질부족·사리사욕·이기심'과 '양적팽창·외형에 치우침' '개교회주의'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교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화 목사는 "기복신앙과 물신주의 같은 세속적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인식이 교회 안에 확산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국민문화재단과 국민일보가 13일 개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국제포럼의 3부 발표자로 나섰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매몰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교회 대부분의 사역이 수적 성장에 집중돼 있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의 무질서한 수평이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회 상호간 공적질서가 무너졌고, 이단들의 유입이 이뤄졌으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양극화에 대한 답변

교회의 양극화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교인의 93.1%, 목회자의 9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양극화 현상을 막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양극화의 중심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목회자의 자질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설문에 응한 교인 중 55%는 목회자들의 도덕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답했다. 목회자들이 가정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교인들은 물질적 욕심(30.3%), 인격, 윤리부족(20.4%) 언행일치의 부족(17.3%) 순으로 답했다. 이 목사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도덕성과 영성, 인격 함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교인 66.4%, 목회자 89%)은 한국교회가 구제·봉사활동 등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노숙인, 장애인,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봉사과제로 꼽고, 구제와 섬김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기독교적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가 교인 37.1%, 목회자 4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목사는 "자기반성을 하는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며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복음전파에 열중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목사는 이 밖에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여성, 청년 등 교회 내 구성원과의 소통강화' 등을 교회의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논찬을 한 이정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총장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상당히 진부한 논제이지만 여전히 중요하다"며 "교파간의 통합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교회간의 연합과 교파 구분 없이 지역의 교회끼리 서로를 돌보는 실효성 있는 연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포럼...여론조사

국민일보가 Refo500을 맞아 조사전문 업체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교회와 사회 개혁을 위한 성도 및 목회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 성도 900명, 목회자 1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1대1 개별면접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3%p.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에 따라 무작위 추출했다.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 성도 "투명·공정성" 목회자 "국민통합"

성도 10명 중 4명 이상(41.2%)이 차기 대통령의 급선무로 '투명·공정성 회복'을 선택했다. 이어 '물가안정·경제성장'(21.1%), '계층 간 양극화 완화'(11.0%), '국민통합'(10.5%) 등이 뒤를 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현직 대통령 파면까지 불러온 정치 상황과 박근혜정부 내내 이어져온 경기 불황 및 빈부 양극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목회자들의 경우 '국민통합'(23.0%)을 꼽은 응답자가 일반 성도의 배를 넘었고 '투명·공정성 회복'(21.0%)은 일반 성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분야에서도 성도들은 '빈부갈등'(34.8%)을, 목회자들은 10명 중 6명 가까이(59.0%)가 '이념갈등'을 가장 많이 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크리스천 대다수의 현실 인식이 일반 유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용근 지앤컴리서치 대표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기 대선에서 크리스천들도 부의 공정한 분배와 성장, 투명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춘 후보에게 투표할 개연성이 높다"며 "목회자들이 보수·진보 등 이념갈등 해소 부분에 관심을 갖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현실적 문제에 대선 후보들이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에 훨씬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 등 시국 현안 발생 원인에 대해 성도들은 '상류층 및 고위 공직자 부패'(54.7%)를, 목회자들은 '정경유착'(31.0%)을 첫 번째로 꼽았다.

차기 대통령 중요 자질 1순위 "정직·도덕성" '강력한 지도력' '책임감' 뒤이어

기독교인들은 정직과 도덕성을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았다. 시국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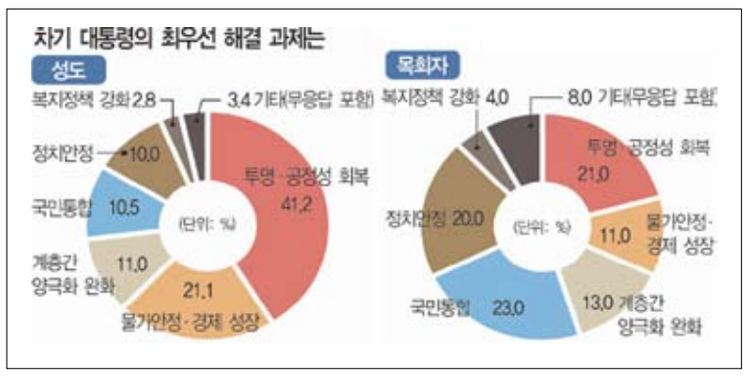
성도와 목회자 절반가량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정직·도덕성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성도들은 정직·도덕성(51.8%)에 이어 강력한 지도력(21.9%), 책임감(13.9%), 결단력(6.1%)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직·도덕성을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은 성도들은 30대(59.3%), 대학 재학 이상(55.4%)에서 많았다. 경제적으로는 하위층(55%), 직업군으로는 블루칼라(58.3%)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55.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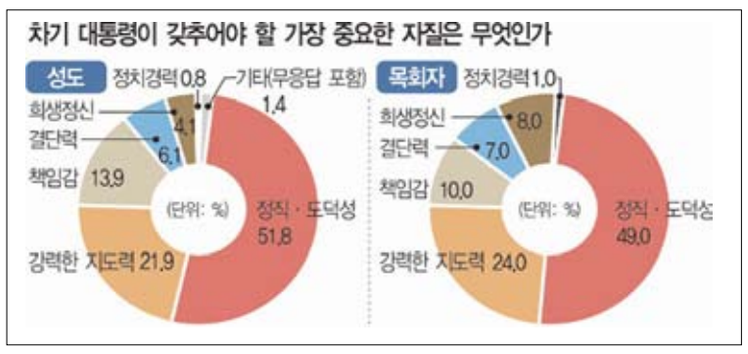
목회자는 정직·도덕성(49%), 강력한 지도력(24%), 책임감(10.0%), 희생정신(8.0%)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60대 이상과 50대 이하 목회자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60대 이상은 정직·도덕성(44.4%)에 이어 강력한 지도력(35.2%)이 중요하다고 봤다. 50대 이하의 목회자도 정직·도덕성(54.3%)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강력한 지도력(10.9%)보다는 희생정신(15.2%)이나 책임감(13.0%)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성도와 목회자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강력한 지도력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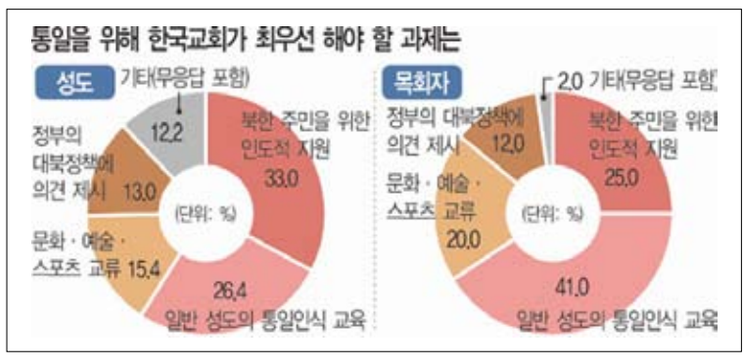
"남북, 반드시 통일돼야" 목회자 94%·일반 성도 64% 직분 높을수록 통일에 긍정적

목회자 대다수가 반드시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가 실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목회자의 94.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81.0%, 약간 그렇다 13.0%)'고 응답했다. 나이와 지역, 교단에 관계없이 목회자 절대다수가 남북통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갖고 있다. 성도 중 통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경우가 64.4%(매우 긍정 32.0%, 다소 긍정 33.4%)였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했다. 부정적 응답은 27.5%였다.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최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성도들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33.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인식 교육'(26.4%), '문화·예술·스포츠 교류'(15.4%) 순이었다.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1000명 이상 대형 교회 출석 교인(40.2%),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36.5%), 경제적으로는 상류층 이상(42.0%)에서 많았다. 하지만 목회자는 '통일 인식 교육'(41.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25.0%), 문화·예술·스포츠 교류(15.4%) 순으로 중요하다고 봤다.

목회자 절반 이상(52.0%)이 한국교회의 통일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성도 다수(68.0%)는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했다.

"경제현실 속상하다" ...성도 62%·목회자 24%

목회자·성도, 한국 정치·사회 바라보는 시각차

국민일보와 지앤컴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반 성도와 목회자들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비(非)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빈익빈 부익부 같은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갈등구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목회자들은 다소 관념적인 해결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현실에 속상하다.' 한국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는 이 항목에서 '그렇다'고 답한 성도는 61.7%였다. 반면 목회자는 24.0%에 그쳤다. '누구나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에 대해 성도는 23.7%에 불과한데 목회자는 무려 66.0%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성도들은 빈부갈등(34.8%)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목회자들의 선택은 '이념갈등'(59.0%)이었다.

이에 대해 지앤컴리서치 지용근 대표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과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목회자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자들이 현세보다는 미래와 내세를 강조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역 특성도 응답 성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칙을 어겨도 아는 사람이면 봐준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성도와 목회자는 각각 79.5%, 87.0%로 나타났다.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에 대해서도 성도와 목회자는 각각 76.4%, 66.0%가 '그렇다'고 답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정·인정주의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사회의 최우선 개혁 분야'에 대해 정치권(68.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여성과 저학력,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고위 공직자(14.1%), 대기업(3.2%), 교육계(3.0%) 등이 뒤를 이었다.

목회자들도 정치권(65.0%)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종교계(12.0%)가 뒤를 이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응답은 일반 성도들에 비해 목회자들이 교계 부조리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에 대해선 성도와 목회자 모두 95% 안팎으로 답했다. 성도 10명 중 7명 정도(73.1%)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시국 현안 발생의 근본 원인과 관련해선 성도들 응답이 가장 많았던 '상류층 및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54.7%)는 19-29세(70.2%), 학생(68.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고위층 부정부패가 젊은 개신교인들로부터도 불신을 사고 있는 셈이다. 이어 정경유착(17.6%)과 연고·이기주의(12.9%), 대통령제 결함(8.9%), 시민 감시·참여 부족(2.6%) 순으로 시국 문제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선교의 창 (74)

사순절(四旬節)에 해야 할 주된 사역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시간적인 존재이다. 아침에 일어나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계절을 탄다. 신앙생활이나 사역도 주님의 말씀과 절기를 따라 진행하면 유익이 크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2017년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인 3월 1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5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다.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나 천주교에 비해 말씀은 강하나 절기를 지키고 그 흐름을 타는 면에서는 약하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유롭다. 좋은 믿음의 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고난, 십자가, 부활, 성령강림을 생각하며 그 절기에 맞추어 살아갈 때 영적 부요함이 크다. 주님과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최대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중점 사역은 무엇인가?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四旬節, Lent)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주일 전야(Easter Eve)까지이다. 1순은 10일이므로 4순은 40일이 된다. 사순절을 영어로 Lent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뜻한다. 사순절의 전통은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단 40시간에서 기인한다. 후에 이 40시간이 연장되어 6일이 되었고 6일은 다시 6주간으로 늘어났다. 사순절이 6주간으로 토의된 것은 AD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였다. 이를 계산하면 6주×7일-6일은 36일이다. 36이란 숫자는 1년 365일의 1/10에 해당한다. 헌데 36일이었던 것이 731년 샤를마뉴(Charlemagne)대제 시대 다시 4일을 더 첨가하여 40일이 되었다. 따라서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46일 전에 시작되며 이 중에서 주일(6회)을 제외한다. 주일을 뺀 것은 이 날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때는 또한 세례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사순절 기간 집중적인 학습과 신앙훈련, 기도와 금식 등을 하며 세례준비를 하였다.

사순절에 대한 교회의 전통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재회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Ash Wedesesday)이라고 부른다. 이 날 사제들은 신자들의 이마 위에 재로 십자가를 그려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준다. 재"(ash)는 회개의 상징이다(렘6:26, 욘3:6, 마11:21). 초대교회는 이 기간에 금식을 강조했으며 자기절제와 회개로 하나님께 한걸음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썼다.

그들은 특별히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삼가 했으며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생활을 자제하였다. 대신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선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중세에는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이 회개의 상징으로 자루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8세기 이후로 가면서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다.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다.

현대 교회의 실태

사순절에 대한 현대 교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초, 중세 교회처럼 자아를 제어하며 신(神)을 향한 투쟁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세속문화에 물들어 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목적 지향적이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심적인 여유가 없다. 그간 현대의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처럼 화려한 기념행사에 열과 성을 바쳐왔다. 교회가 겸손함보다는 화려함을 선호하고 침묵과 명상보다는 찬양과 여러 행사에 열정을 쏟아왔다. 따라서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한 과정에 불과했다. 이 사순절에 순전히 주님을 찾기 위해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사순절의 핵심은 성도들이 고요한 묵상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때이다. 좀 더 천천히, 깊이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반자의 훈련이 필요한 때이다. 함께 가는 길은 그냥 따라나서는 길이 아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새 길을 여는 다짐이 요구된다.

사순절에 해야 할 일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절기이다. 이 때는 신앙의 성장과 영적 훈련을 위한 좋은 기간이다. 참된 신앙은 회개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나 요인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절대적인 것이다. 매일 시간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금식과 절제훈련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다. 인간에게서 욕망은 경건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의식적으로 TV, 미디어, 취미생활 등을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 보려고 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라 내면적인 준수이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 보다 습관적으로 가던 길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있어서 걸림 돌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순절의 중점 사역

목회자나 선교사는 늘 사역적 부담 속에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 생각으로 머리속이 복잡하다. 일 속에 파묻혀 쫓기는 삶을 살기 쉽다. 동분서주 하다보면 어느새 자아를 잃고 휘청거릴 때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서는 것이다. TO BE가 TO DO 보다 우선적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 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더 중시한다. 그러므로 이 뜻 깊은 사순절에 사역자들은 조용한 침묵의 정좌를 사모해야 한다.

굳이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주님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체화하며 그 분이 주신 촉촉한 은혜를 입지 못하면 누구나 핍절될 수밖에 없다. 이때의 최고 사역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체들로 하여금 활동을 절제하고 십자가의 주님께도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맺음 말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제자의 도를 훈련하는 기간이다.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성찰과 회복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향기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야 한다. 오랜 신앙 경륜임에도 옛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성화는 한 순간에 되어 질 수 없다. 산고의 고통 속에서 견고한 자아가 부서져야 한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우리는 고난을 먼발치에서 보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의 부활의 능력도 덧입을 수 있다. 사순절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기회이다.

jrsong007@hanmail.net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이다.
이 때의 주된 사역은 주님의 고난을 체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 없는 사역은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순종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가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아니니아는 조금 전에 살펴본 그의 이름이나, 영적인 성숙함, 인격적인 평판에 맞게 "주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스토리의 전개상 맞을 텐데,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이유를 답니다(13-14). 지금 아나니아가 말하는 내용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정보를 총 종합한 현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지혜로운 처사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을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15-16절). 사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아니니아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영적인 깊이와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모한 것도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타당합니다. 논리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에 토대한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참 매력적이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C. 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고참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마귀 일을 갓 시작한 신참 마귀인 조카 윔우드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31개의 편지로 되어있는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골수 무신론자 하루는 대영박물관에 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에게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우선 밥먹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해야지" 하고 미룹니다. 밖에 나오니까 거리를 지나가는 버스들,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팔이 소년의 외침, 세상은 온통 현실적인 것들로 가득차 있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심어줍니다. "실재의 삶 앞에 하나님이니 복음이니 이런 것들이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야말로 하나님이니, 영적이니, 이런 추상적인 논리들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다."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 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현실적인 삶이 실재적인 삶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현실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붙잡혀 있으면,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현실, 그럴싸한 명분, 설득력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성숙한 신앙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죽음을 넘어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kpc3927@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주관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1517년-2017년)

제4차 종교개혁발상지 유럽 5개국 학습여행

지난 3차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맞춤학습여행

여행일정: 2017년 9월 11일(월)-23일(토) 총 12박 13일
참가경비: 3,9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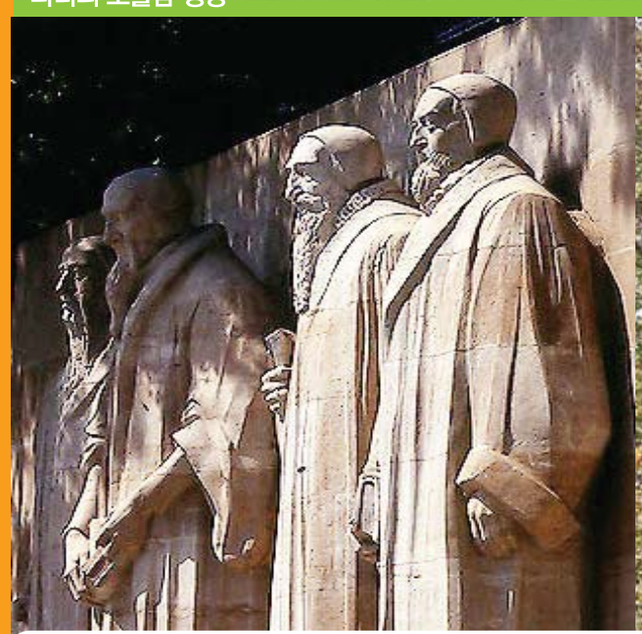
미주전역,
한국에서도
출발 가능합니다

모집정원: 40명(선착순)
1차 등록마감: 2017년 3월 31일(금)
등록 예약금: 1,000달러

파리의 노틀담 성당

바르트부르크 성
루터가 숨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곳

비텐베르크 성 교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서 (3차여행단)



제네바의 레만 호수

알프스의 리기 마운튼

종교개혁일은 개신교의 탄생기념일입니다. 2017년은 개신교가 탄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크리스천 위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제4차 종교개혁 발상지 학습여행을 실시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낸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쯔빙글리, 존 낙스, 그리고 얀 후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행적을 찾아나서는 이번 학습여행을 통해 개신교 탄생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반 여행사들이 찾지 않는 종교 개혁을 주제로 한 선택 여행 루트이기에 맞춤형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결성한 옥스포드대학교

런던에 있는 웨슬리 채플

4차 학습여행의 주요 방문도시들

* 요한 웨슬리와 찰스 위슬리가 '홀리클럽'을 결성했던 옥스퍼드 대학
* 칼빈의 후예들인 위그노의 나라 프랑스 파리
* 존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생피에르교회와 칼빈 생가
* 츠빙글리가 목회하던 취리히 그로스민스터 교회
* 알프스의 아름다운 정경을 한눈에 리기 마운튼
*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은 보름스
*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
* 루터가 사제가 되고 수도사가 되었던 에르푸르트
*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비텐베르크 성교회와 루터 생가
* 북부의 아테네로 불리는 드레스덴
* 루터보다 100년 일찍 교황청의 불의에 도전한 얀 후스의 도시 프라하

비텐베르크 마르크트 광장에서
(2차 참가자들)

파리의 에펠탑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여 정
1일 9.11(월)	LA			LA 공항 국제선 터미널 집결, 런던행 항공기 탑승
2일 9.12(화)	런던	전용버스		런던 도착 후 트라팔가, 런던 브리지 등 관광 후 석식, 호텔 휴식
3일 9.13(수)	런던	전용버스	08:00	(영국의 종교개혁 관련 순례) 올더스 게잇, 요한 웨슬레 생가, 교회, 번힐 필드, 옥스포드 대학 등 순례
4일 9.14(목)	런던 파리	전용버스 유로스타	08:00	버킹검궁(근위병 교대식), 대영 박물관,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빅벤 등 관광 후 유로스타 편으로 파리로이동 후 호텔 휴식
5일 9.15(금)	파리	전용버스	08:00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샹제리제, 콩코드 광장, 노틀담 사원, 세느강 유람선(옵션) 등 관광 후 호텔 휴식
6일 9.16(토)	파리 제네바	기차 전용버스		(칼빈의 종교개혁관 련 순례) 칼빈이 목회했던 St. Pierre교회, 목사관, 바젤대학, 종교개혁 기념비, 레만 호수 등 순례 후 호텔 휴식
7일 9.17(일)	제네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알프스, 리기마운틴 등정후 취리히로 이동후 휴식
8일 9.18(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뮌스터 교회,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프라우 뮌스터 교회 순례 후 하이델베르그로 이동, 하이델베르그 고성, 대학가 등 순례 후 보름스(마틴루터가 보름스 종교재판을 받은곳, 순례 후 호텔 휴식
9일 9.19(화)	프랑크프루트 아이젠아흐 에어프루트		7:00	프랑크프루트로 이동, 괴테하우스, 뢰머광장 순례 후, 아이젠아흐로 이동, 루터 생가, 바르트부르크 고성(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곳) 바하 관련 순례후 에어프루트 도착 휴식
10일 9.20(수)	에어프루트 라이프찌히 비텐베르크		7:00	마틴루터가 대학을 다니고 수도생활을 시작한 에어프루트 순례, 에어프루트 돔, 크레머 다리, 페테스부르크 요새 등 순례 후 라이프찌히로 이동, 바하가 지휘자로 근무한 St. Thomas교회, 통일 독일의 시발점인 촛불시위로 유명한 St. Nicolas교회 순례후 비텐베르크로 이동, 비텐베르크교회(95개조 반박문이 걸린 곳), 마틴루터와 멜랑히턴 동상, 마틴루터 생가, 박물관 순례후 호텔 휴식
11일 9.21(목)	드레스덴 프라하		8:00	동부독일의 파리라 불리는 드레스덴 관광 후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이동, 석식후 아 름다운 프라하의 야경 관광.후 호텔 휴식
12일 9.22(금)	프라하		8:00	(얀 후스 종교개혁 관련 순례) 얀 후스 기념(베들레햄)교회 순례, 프라하 고성, 대통령궁, 비트성당, 카를교, 바츨라프 광장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프라하 관광 후 휴식
13일 9.23(토)	프라하 LA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프라하 출발 L A 행 항공기 탑승. LA 도착후 SWEET HOME 으로....

문의전화: (213)383-2345, 이메일: cweeklyusa@gmail.com
직통 (818)624-2190
*카톡으로 신청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카톡 ID: myungcho2004)

유서깊은 대학도시 하이델베르크

참가 신청시 유의사항

1. 참가 신청시 성명은 반드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참가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3. 그룹으로 참가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에는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어드립니다

제4차 종교개혁 발상지 학습여행 신청서

신청인 (한글) (영문)
현주소
생년월일
Tel E-mail
여권번호 여권만기일
동반자 (한글) (영문)
Date
신청인 서명 동반자 서명

신청서 보낼 곳 : 크리스천 위클리 3700 Wilshire Blvd. #755, Los Angeles, CA 90010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9)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3)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난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한인 기독교교육에서, 특히 한인교회에서 발견되는 여성차별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회들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한인 기독교교육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지적하였듯이 한인교회의 여성차별적인 모습은 결국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가부장적 해석과 이에 따른 실행"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 내 활동에 있어서 목회자건 성도들이건 막론하고, 주로 남성이 지도적이며 주된 역할을 하고 여성은 순종적이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단 하나의 올바른 모습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또한 이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건 성도들이건 막론하고, 주로 고급인력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전문적인 일을 맡는 것은 주로 남성들이고, 딱히 고급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비전문적인 일을 맡는 것은 주로 여성들인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을 사라지게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며, 이에 오늘 그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식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역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일 것입니다. 즉 우리 한인 기독교 교육은, 여성이 교회에서 리더로서 섬기는 것,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역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로 여겨지도록,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사역이 제한 받고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받고 격려 받아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제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관점 및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들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기인하였는지 아니면 가부장적인 견해에서 기인하였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마음 속 깊이부터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확장을 위해 지도력을 펼치며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르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즉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견해, 태도, 및 실행은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랫동안 이어온 가부장적인 이해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인 기독교교육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부장제적 이해에서 비롯되었음과 여성 리더십의 실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여성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반응들에 꽤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실상 여성 성도들에게서 보다 격한 거부 반응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며, 안정적인 질서를 위협받는 듯 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하다 낙심치 않으며, 옳은 일을 위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행동의 교정과 실천의 개선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교회 안의 여성차별적인 모습들을 제거하기 위해 한인 기독교교육이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성역할 스테레오타입(gender role stereotype)을 깨뜨리고, 그에 따른 실행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남성의 사역과 여성의 사역은 그 종류와 지경에 있어서 이미 공고하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지도적인 위치에, 여성은 순종하는 위치에, 그리고 남성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여성은 다소 소모적인 비전문적 영역에서 섬겨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미 다수의 교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섬김의 패턴으로 인식되고 경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 자신이 그 패턴을 벗어나든, 혹은 나의 형제자매가 벗어나든, 매우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역할 스테레오타입을 깨뜨리고, 그에 따른 실행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시도가 어려울지언정, 일단 한 번 기존의 성역할 스테레오타입이 깨어지고 기존과 상이한 패턴으로 사역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의 성공과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게 되면, 의외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이상의 경험에서는 보다 저항도 덜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지며, 성공적인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전통과 관습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기준이 된다는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존과는 다른 사역의 패턴들을 경험하는 일에 용기 있게 임한다면 아주 훌륭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미 이러한 일을 시작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맺기 전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여성차별적인 모습들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앞서 언급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하는 일과 실질적인 행위적 및 실천적 변화는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양자는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실천이 바뀌기도 하고 실천을 통해 인식이 다시금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점차 바람직한 통전적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여성차별적인 모습들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 남성의 리더십을 여성의 리더십으로 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성차별적인 모습들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끌고 서로 순종하는,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진정한 섬기는 지도자들(Servant-Leaders)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두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과 행동 교정과 실천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교회내 성차별 해결이 남성리더십의 여성리더십 치환 아냐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롬4:1)찬473장

앞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나가게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신실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원은 이 의에 이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룰 수 없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죽음을 가리켜 보배로운 피로 표현했습니다(벧전1:19). 셋째, 그를 통해서만 죄인은 의인이 되며 실질적인 의에 이르러 의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습니다. 이 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며 목표입니다.

화 신자의 즐거움(롬4:2-5)찬453장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소요리문답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도는 왜 즐거워합니까? 첫째,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단지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아무 자랑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엡2:8-9).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2).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본 자는 은혜와 진리의 실상을 보기에 자신을 거기에 아낌없이 던집니다(요1:14).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냄이 우리의 최대의 즐거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기 때문입니다(5). 또한 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부패한 인생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참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수 산 소망(롬4:3-5)찬167장

복음 안에서 발견된 바울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 복이라고 말합니다(롬3:28).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딤후1:8). 둘째, 인내를 배우는 소망입니다. 불신앙은 고난을 통한 원망, 불평 그리고 좌절로 마치지만 신자는 고난의 때에 인내를 배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뻐하라고 권합니다(약1:1-2).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의, 진실 그리고 거룩의 다른 표현입니다(엡5:24). 셋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소망입니다. 마침내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런 산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목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롬4:6-8)찬416장

사람의 사랑은 물거품처럼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한 사랑입니다(6,8). 둘째, 성부의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대속의 사랑입니다(6). 6절의 기약대로는 성부의 사랑의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요3:16). 성부의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성자의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7-8). 성부뿐 아니라 성자 역시 자원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달라는 성자의 기도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증거합시다.

금 바울이 본 구원(롬4:9-11)찬500장

사도가 반복할 정도로 복음은 놀라운 내용을 가졌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요약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불의를 자신의 죽음으로 처리하신 십자가 사건은 자기 백성이 의를 얻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토록 든든한 의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큰 담력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그의 죽음 역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유일한 발판입니다. 의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와 연합하는 자가 돼 영생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셋째, 그의 부활로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됐습니다. 죽음이 죄사함의 근거라면 부활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발판이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나 그 사건에 근거를 두게 함으로 더 구체적이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롬4:12-14)찬102장

사도의 복음은 자신의 고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창세전의 숨겨진 비밀의 드러남임을 구속사의 흐름을 통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구원을 말한 바울은 지금 마지막 아담으로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첫째, 첫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된 것은 아담이 대표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12). 둘째,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더 밝혔습니다(13). 마음에 심긴 율법인 양심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는 죄인됨을 더 증거했지만 율법을 오용한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셋째,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아담의 후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됐습니다.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죄를 모두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힘써 찬양합시다.

2017년 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BETHESDA UNIVERSITY |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모집학과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음악
학부(B.A.)/대학원(M.A.)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영화음악
경영학
학부(B.A.)/대학원(M.B.A.)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유아교육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SL
ESL I-20/ Certificate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온라인
학부(B.A.)/대학원(M.A/M.Div.)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팀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해택

종교개혁 500주년...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발상지 학습여행 동행기 (5)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부터 얀 후스의 프라하까지

루터가 설교한 성모마리아교회, 첫 독일어예배 거행
...첫 개신교 목사안수식도 열린 종교개혁 모태 교회

루터보다 100년 앞선 얀 후스, 교권주의 반대 자국어 성경번역
화형 당하자 체코 전 국민 분노, 폭동도 일어나

신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르트부르크성의 작고 허름한 방에서 지냈던 1년의 시간은 독일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독일어 성경이 탄생됨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며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로 향했다.

이번 여행에선 지난해에 없던 에르푸르트를 방문 일정이 있었다. 에르푸르트는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들어간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던 도시. 수도자로서 있다가 사제서품을 받은 곳이다. 당시는 사제서품을 먼저 받고 신학공부를 할 수도 있었다. 사제가 된 루터는 본격적인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비텐베르크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시대가 열린 것이다.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성(城)교회-개신교의 정신적 문화재

비텐베르크(Wittenberg)는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에 있는 도시로서 통일되기 전에는 동독의 땅이었다. 이 작은 도시는 종교개혁을 위한 마틴 루터의 활동무대였다. 그래서 '개신교의 성지'라고도 부르고 '루터의 도시'란 별명도 갖고 있다.

루터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해서 살던 집이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루터하우스'란 이름의 박물관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가 설교하던 교회,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도 이 도시에 있었다.

지금의 비텐베르크 대학교는 할레의 대학교와 합병하여 할레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대학교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 루터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곳도 이곳이기 때문이다.

인구 약 2만 명의 소도시인 비텐베르크 중심부에 있는 성 교회가 바로 그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교회당이다. 그 반박문을 써 붙인 예배당 문을 '테제의 문'이라 부른다. 이 곳을 찾는 순례객은 연간 20만 명이라고 한다. 1524년 카톨릭 성당에서 루터교 교회로 전환됐고 당시 루터의 95개 반박문은 동판문에 각인돼 영구히 보존되고 있는 중이다. 문 상부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 그림은 보통 그림과는 달리 눈을 뜬 채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형상이다. 교회의 각성과 개혁의 바람을 은유한다.

이 비텐베르크 캐슬 교회는 종교개혁의 시작과 전개과정을 보여주며 신앙과 믿음, 개혁을 낳은 개신교의 '정신적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루터와 그의 절친 멜랑히톤의 무덤도 이 교회당에 있다. 그리고 성탑을 연상케 하는 교회당 원형탑 꼭대기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란 말이 씌여 있다.

'루터의 설교교회'란 별명이 붙은 비텐베르크 시 교회(성모마리아교회)

시립 교회인 성모마리아교회는 1187년 처음으로 문서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이 성모마리아교회는 시민들을 위한 교회로서, 루터와 부겐하겐이 설교를 하던 곳이다. 그래서 '루터의 설교교회'란 별명이 붙어 있다.

이 교회당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첫 독일어 예배가 거행된 곳이란 점이다. 그동안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 또 성만찬 시간에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둘 다 분급하기 시작한 교회로도 유명하다.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양형 영성체를 반대하고 단형 영성체로 성찬식을 하고 있다. 또 1535년에는 최초로 개신교 목사 안수식이 열린 예배당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교회는 종교개혁의 모태 교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시 교회는 비텐베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또 루터가 평생 설교했던 교회이다. 루터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부겐하겐의 흉상이 서 있고 500년 된 세례단과 화가 루카스 크라나하의 제단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그림을 '종교개혁 제단화'라고도 부르는데 부자 화가 중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흐가 루터를 젊은 예수로 그린 '만찬' 장면을 중심으로, 아들 루카스 크라나흐가 1547년 쯤에 '세례'와 '참회' 장면을 양쪽에 덧붙인 것이다.

루터보다 100년 전 화형당한 얀 후스를 찾아...

우리 일행은 비텐베르크 일정을 끝내고 체코 프라하로 향했다. 루터의 활동무대였던 비텐베르크. 그 작은 도시에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해 독일과 유럽을 거쳐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위대한 일이 그곳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곳에서 루터의 숨결을 느끼며 성모 마리아교회, 비텐베르크 성채교회, 마르크트 광장, 루터가 살던 현재의 루터 박물관, 멜랑히톤의 동상, 루터의 무덤, 그리고 한적한 그 도시의 모습들을 둘러본 경험은 오랫동안 우리 가슴에 머물 감동이요 깊은 인상이었다.

프라하로 가는 길에 우리는 '독일의 피렌체'라고 불리는 드레스덴을 경유했다. 작센 주의 주도이며 독일 동부의 문화, 정치, 상공업의 중심지로서 '유럽의 발코니'란 별명이 붙을 만큼 경치가 뛰어난 도시다.

드레스덴은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던 도시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사랑이 지극했던 만큼 피해도 극심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인 1945년 2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도시의 90%가 초토화되었다. 이를 드레스덴 폭격이라 부른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도시는 동독에 속하게 되었다. 공산진영에 묶여 있던 드레스덴은 1990년 역사적인 독일통일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자 활발하게 재건되기 시작했다.

90%가 파괴된 이 도시의 옛 모습을 거의 본래대로 복원해낸 독일 국민들의 정신은 이 도시에서도 빛난다. 유명한 궁정교회나 오페라하우스, 츠빙거 궁전에 들어서면 불에 타고 남은 것 같은 검은 벽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운 벽돌이 틈틈이 들어가 있어 마치 흰색과 검은색의 모자이크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은 전쟁터에서 나뒹굴던 벽돌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던 드레스덴 시민들이 통독 후 도시가 복원되기 시작하자 하나, 둘 집에서 그 검은 벽돌들을 들고 나왔다. 그렇게 복원되어 이제는 다시 '엘베의 피렌체'란 명성을 되찾고 있는 중이었다.

독일 드레스덴에 있은 군주의 행렬 벽화

안 후스의 동상앞에서 마지막 기념촬영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새겨 놓은 Castle Church

독일 드레스덴 궁정교회

얀 후스(Jan Hus)의 나라 체코

후스는 1372년 보헤미아(현재 체코) 남부 후시네츠 마을에서 태어났다.

후스는 사제가 되기 위해 프라하 대학교 공부하는 동안 영국의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John Wyclif)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위클리프는 세속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교황청의 주장은 어떠한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클리프는 강력한 교회개혁을 외치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에 의해 1377년 정죄를 받았고 1415년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단 판결을 받았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저술들의 일부를 체코어로 번역하였다. 후스는 또한 성서를 자국어로 번역

하여 보급했다. 그는 모든 믿음의 원천을 교황의 말이나 교리가 아닌 성서에 두었고, 교권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했다.

1414년 말 교황청은 콘스탄스에서 공의회를 소집했고 신변안전을 보장받은 후스가 공의회에 참석했으나 금방 체포되어 결국 이단 선고를 받고 1415년 7월 6일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후스의 폭력적인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프라하 시민들을 비롯하여 체코 왕국에서는 전 민족적인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그만큼 후스는 체코 국민들에게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다.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후스의 종교재판관 중 한 사람이었던 에어푸트(Erfurt) 대학의 교수 요하네스 자카리우스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한 마리의 거위(Hus란 말의 체코어 음역은 '거위'를 의미)를 불에 태우지만, 일백 년 후에는 백조 한 마리가 등장할 것이다"란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백조는 루터를 가리킨 것이라고 한다.

프라하의 '종교개혁 광장' 중앙에는 후스의 서거 500주년을 맞은 1915년에 세워진 후스의 동상이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운동 100년 전에 이미 교황청에 맞서 교회개혁을 외치다 화형당한 후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그가 시무하던 베들레헴 교회, 그리고 틴 성당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프라하의 상징인 프라하 성과 비투스 성당도 돌아보며 500년 전의 개혁이 지금 현시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재조명돼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행 일정을 마쳤다.

〈이성자 기자〉

〈끝〉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KAPC 컨퍼런스

주제: "이 시대의 종교개혁 (Reformation Today)"

일시: 2017년 4월 6일 (목) 오후 4시 ~ 7일 (금) 오후 9시
장소: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담임 박성일 목사)
1911 West Marshall Street, West Norriton, PA 19403
610-630-6300 jubileekapc.org
강사: 김성봉 목사, Frank James 총장, 김은일 교수
조진모 목사, 조영천 목사

대 회 장: 고택원 목사
부 대 회 장: 유재열 목사
총 회 서 기: 허상회 목사
총 무: 공재남 목사 (718-619-8597; davidkongca@gmail.com)
준 비 위 원: 박성일 목사(위원장), 권영국 목사, 김대엽 목사, 김미성 목사, 김현인 목사, 박원철 목사, 임현석 목사, 조성훈 목사, 최해근 목사, 한일철 목사